

손잡고

손매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

2018년 제3차 회원총회 자료집

손잡고



손잡고 회원총회

손잡고,
맞잡은 손의 온기가
현장에 닿도록

일시 : 2018년 4월 27일(금) 오후7시 | 장소 : 인권재단사람(다목적홀)



✉ 2018 정기총회 식순

- 총회의장 : 배춘환 (손잡고 공동대표)
- 사회 : 박래군 (손잡고 운영위원)

- 진행순서
 1. 개회선언
 2. 성원 보고
 3. 의장 인사말
 4. 2017년 손잡고 활동 보고
 5. 안건 상정 및 승인
 - 제1호 의안 : 2017년 회계·업무 감사보고와 승인의 건
 - 제2호 의안 : 2018년 예산·사업계획(안) 보고와 승인의 건
 - 제3호 의안 : 임원선출 및 승인의 건
 - 제4호 의안 : 기타 의안
 6. 공지사항
 7. 폐회선언

- 목차 -

손잡고 3회총회 식순

손잡고 활동보고

1. 조직소개	---	1
2. 활동목표	---	2
3. 조직활동보고	---	3
4. 전체사업표	---	6
5. 주요활동보고	---	8
6. 전체사업 평가	---	40
7. 활동일지	---	41

2017년 회계-업무감사 보고

1. 업무감사보고	---	55
2. 회계감사보고	---	56

총회 안건 상정 및 승인

1. 회계·업무감사 보고와 승인의 건	---	61
2. 2018년 사업계획(안) 보고 및 승인의 건	---	62
3. 2018년 예산(안) 보고 및 승인의 건	---	66
4. 임원선출 및 승인의 건	---	67
5. 기타 안건	---	68

[부록1.] 손잡고 정관

[부록2.] 20대국회에 제출한 노란봉투법

[부록3.] 법안설명자료



2017년 손잡고활동보고

1. 조직소개

1) 단체명 : 손잡고(손배가압류를잡자!손에손을잡고)

손잡고는 노동자 손배가압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시민모임입니다. 2014년 2월 26일 시민사회 각계각층 550명의 제안자와 함께 출범했으며, 같은 해 4월 16일 서울시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했습니다. 손잡고는 손해배상과 가압류, 업무방해죄 등 법제도를 개선하고, 노동자와 가족들에게 고통을 주는 손배가압류 문제에 대해 사회적인 인식을 바꿔낼 수 있도록 문화행사를 비롯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2) 운영조직

2016년 4월 25일 개최한 제1차 손잡고 회원총회를 통해 다음의 운영진을 선출했습니다. 이후 운영위원 개인사정과 조직의 필요에 따라 인원변동이 있었으며, 운영위원회 추대와 임시총회(2016. 9. 7)를 통해 회원들께 승인을 받았습니다. 손잡고의 회원은 제안자 550명과 CMS시스템을 개편(2016. 7. 1)하면서 새로 후원회원으로 등록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 상임대표

•배춘환 : 회원대표, 2014노란봉투캠페인 제안자

- 운영위원(7인)

•박래군: 인권재단사람 부설 인권중심사람 소장

•박병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외협력실장

•송영섭: 변호사, 금속법률원장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윤지영: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조 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감사

•업무감사 : 김도형(변호사)

•회계감사 : 박병학(회계사)

- 사무국 : 윤지선

- 회원 : 제안자 550명, 후원회원(일시후원포함) 258명

3) 활동위원회

손잡고는 활동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다음의 활동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활동위원회 구성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릅니다.

- 진상조사위원회
- 손잡고기금심의위원회
- 손잡고법제도개선위원회
- 노동현장간담회참여단위 : 손배피해사업장 참여
 - 민주노총 지역본부 소속 : 동양시멘트지부, 부산합동양조 생탁, 울산과 학대학노조, 부천지역일반노조 원종복지관노조
 - 전국금속노동조합 소속 : 갑을오토텍지회, 기아차사내하청분회, 상신브레이크지회, 쌍용자동차지부, 유성기업지회, 파인텍지회(스타케미칼), 하이디스지회,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 KEC지회, DKC지회
 - 보건의료노조 소속 : 고려수(금천수)요양병원지부
 - 언론노조 소속 : MBC본부
 - 공공운수노조 소속 : 철도노조, KTX 승무지부

2. 활동목표

1) 목표

- 손잡고는 파업 및 노동쟁의를 사유로 한 손해배상과 가압류로 인해 임금, 퇴직금, 상여금, 집, 자동차, 통장이 모두 가압류되는 상황에서 경제적 위기, 가족해체, 신용불량 및 파산, 스트레스와 심리적 불안 등으로 이어지며 극단적 자살위기를 겪는 피해자들을 위해 긴급 생계·의료비 지원을 합니다.
- 손잡고는 손해배상 및 가압류 문제에 대한 법률적 해소를 목적으로 손배가압류 청구의 요건과 범위를 강화하는 법개정 활동을 비롯해 손배가압류의 심각성을 알리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활동을 합니다.

2) 2017년 주요과제

- 입법활동 :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입법을 위한 활동
위원회 구성
- 모금활동 : 손배가압류 관련 사회적 모금운동
- 지원활동 : 손배가압류 피해자 및 노동현장 지원활동
- 의제활동 : 손배가압류 관련 사회적 의제화 활동(기고, 교육, 토론회, 공청회 등)
- 감시활동 : 손배가압류 현황조사 및 사례 기록
- 캠페인활동 : 손배가압류 문제 해결에 대한 여론형성(문화공연, 전시, 릴레이1인시위 등)
- 회원활동 : 회원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방안 모색
- 회원배가운동
- 사무처 근무환경 개선 및 사무국 구성 확대

3. 조직 활동보고

1) 운영위원회 활동

① 주요활동 내용 : 2017년 운영위는 조직정비, 기획 및 사업 승인, 활동위원회 구성, 손배소가압류 문제를 알리기 위한 홍보활동, 손잡고 자체모금활동 기획 및 승인 등의 활동을 했습니다.

② 2017년도 정기 운영위회의 : 10차례 진행

- 2017.1.18. [운영위회의] 제10차 손잡고 운영위원 회의
- 2017.2.15. [운영위원회] 제11차 손잡고 운영위원회 회의
- 2017.3.15. [운영위회의] 제12차 손잡고 운영위원 회의
- 2017.4.19. [운영위회의] 제13차 손잡고 운영위원 회의
- 2017.6.15. [운영위회의] 제14차 손잡고 운영위원 회의
- 2017.8.29. [운영위회의] 제15차 손잡고 운영위원 회의
- 2017.9.27. [운영위회의] 제16차 손잡고 운영위원 회의
- 2017.10.25. [운영위회의] 제17차 손잡고 운영위원 회의
- 2017.11.21. [운영위회의] 제18차 손잡고 운영위원 회의

- 2017.12.19. [운영위회의] 제19차 손잡고 운영위원 회의

③ 각 운영위원 담당활동 구분 : 손잡고의 운영에 있어 계획된 활동 목표를 효과적으로 실행하고, 운영구조와 재원확보방안이 안정적으로 마련될 때까지 사무국 구성을 1인 활동가 체제로 둘 수밖에 없는 한계 등을 고려해 각 운영위원은 활동 계획에 따라 분야별 담당을 맡아 사업을 책임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담당 운영위원은 사업 시행 과정을 매달 운영위회의를 통해 공유하고 주요의견을 담당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무국 담당 : 박병우 운영위원
- 모금·캠페인, 국회사업 담당 : 박래군 운영위원
- 노동현장 담당 : 이남신, 윤지영 운영위원
- 법제도개선활동 담당 : 송영섭, 윤지영 운영위원
- 회원 담당 : 박래군, 안진걸 운영위원

2) 손잡고 운영위원회 진상조사소위원회 : 2016년 4월 25일 ~

① 손잡고 제1회 총회결과(2016.04.25.)에서 “2기에서 TF를 구성할 예정이며, 회비 및 증빙서류에 대한 이관이 마무리된 후 회비에 대한 결산 및 감사보고를 홈페이지 및 메일 등을 통해 회원들에게 공지할 것임을 약속”하고, TF담당 운영위원으로 박래군(위원장), 박병우, 윤지영 3인을 선임하는 것을 결정했습니다.

②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손잡고 1기 출범(2014. 2. 24.) 후 현재까지 발생한 손잡고 활동가에 대한 제반 인권 및 노동권 침해 현황을 규명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
- 손잡고 1기 출범(2014. 2. 24.) 후 현재까지 발생한 평화박물관과 손잡고 사이의 운영 문제를 규명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
- 위 두 가지 사안에 대한 진상 규명과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통해 다시는 활동가에 대한 인권과 노동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③ 2017년도 활동경과 : 진상조사위원회는 회의, 면담 및 자료 검토 등을 진행

하고, 그 결과를 정리해 2016년 7월 20일 “손잡고 활동가에 대한 노동권·인권 침해 진상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해 2016년 8월 29일 이메일을 통해 “CMS회비 관련 회원보고”를 하고, 임시총회(2016. 9. 7)를 거쳐 진행경과 및 향후계획을 회원들께 알렸습니다.

- 2016년 8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약 1년 여 동안 <손잡고>는 시민사회 인사들의 중재 요청을 받아들여 중재가 진행됐으나 한홍구 교수와 평화박물관 측이 결국 회비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 지속적인 CMS 회비 반환 요청 목سال에 2017년 2월 <손잡고>가 평화박물관에 대해 CMS 회비 지급 명령을 신청했으나 평화박물관 측이 이에 불응하며 이의제기하여 회비반환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 2017년 9월 회비반환소송 1심에서 <손잡고>가 승소했습니다(미회수 회비와 재정 전용 금액 포함 약 2천만 원 전액).
 - 2017년 11월 9일 평화박물관 측이 회비를 반환했으나 원금 일부 입금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 2017년 11월 9일 항소심에서 <조정회부 결정문> 송달(11.2 발송).
 - 2017년 12월 8일 조정절차 : 1심 판결 그대로 강제 조정을 결정했습니다.
 - 현재는 평화박물관 측이 법원 조정결정에 불복해 항소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 한홍구 교수가 진상조사위원 박래군, 박병우, 윤지영 등과 단체 <손잡고>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3천만 원 손해 소송을 제기.
- 손해소 현황(변호인단 김한규 변호사, 윤지영 변호사)
 - 2017년 10월 19일 박래군, 윤지영 위원에게 소장 송달.
 - 2018년 1월 30일 박병우 위원 및 배춘환 대표에게 소장 송달.

3) 사무국 구성

- ① 사무공간 이전 : 종로 사무공간은 2017년 3월까지 사용했으며, 이후 <재단 법인 인권재단 사람>의 공간지원을 받아 다시 한 번 사무실 이전을 했습니다. 현재는 <인권재단 사람> 1층에 위치합니다. 2017년 4월 행정기관 이전 신고를 마무리했습니다.
- ② 활동가 : 증원없이 1인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4. 2017년 전체사업

표-2017 손잡고 활동정리표

항목구분	사업계획	시기	비고	
모금활동	CMS-회원배가활동	수시	회원 258명	
	법률비용긴급모금	2017.8.31.~9.6	8,338,227원 모금	
	4.9통일평화재단 일곱 번째동행 공모사업	2017.4.9.-12.31	프로젝트비 450만원 제3회 모의법정 사용	
	해피빈재단 기부금 모집단체 가입	2017.7.28	모금 2천만원 2018년 적립	
	인권재단사람 특별배분 지정기탁	2017.3.30.-4.5	장기해고자지원사업 사용	
캠페인활동	제3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2017. 4.18~8.31	연례사업	
	연극<노란봉투> 재공연	2017.4.25.~5.14	연우무대 제작, 손잡고 후원	
	제2회 손잡고연극제 연극<C가왔다> 공연	2017.5.23.~6.11	극단 뭉씨어터, 이양구 작, 이동선 연출	
	연극<노란봉투>국회특별공연준비	2017.12.29.~	본공연 2018.1.29.	
	'손배가압류' 전시기획 준비	2017.10.27.~	본 전시 2018년 하반기	
법제도개선활동	노동현장간담회	월1회	17차~28차 회의 진행	
	손배피해기록	수시	KEC 손배압류일지 기획/ 손배가압류피해자기록 9회진행	
	입법활동	법제도개선위원회	상반기	노란봉투법(2017.1.7.발의)
		입법간담회/면담	2017.1~	법제도개선 정부부처 및 국회간담회 8차례 진행
		입법청원서명운동	2017.1.11.~5.30	거리서명 15회 진행 온라인서명 1/11 시작
	2017년 손배가압류현황발표	연1회	연례사업	
	손잡고-손배피해현장 손배소 합동 기자회견	2017.1.17./2.7./ 6.28	3회 진행	
	국가손배대응모임	2017.5.11~	괴롭히기소송규제/제한법 준비 1차~15차 회의진행	
	입법관련 주최 토론회	2017.2.8./11.28	입법-정책토론 2회 진행	
연대활동	연대사업참여	손배현장지원	수시	38건 진행
		기타-시민사회연대	수시	15건 진행
	기타(성명, 기자회견 등)	수시	논평 9건, 기자회견 10건. 판례평석 2건	

지원활동	피해자직접지원		2017.1.6	손배가압류피해자 긴급의로비지원
	장기해고자긴급지원		2017.4.5	인권재단사람지정기탁 지원금전달
	손배소피해자 법률비용지원	현대차비정규직	2017.9.11	법률기금모금전달
		하이디스지회	2017.9.13	법률기금모금전달
	지원 연계		2016.10~계속	성심수녀원소피센터 장학금/영유아지원
언론활동	손배가압류 관련 기고		수시	22건
	언론기획		수시	7건
회원활동	총회		2017.4.26	정기총회
	손잡고편지		수시	5건
	'안녕히어로' 회원상영회		2017.9.11	손잡고*참여연대*천주교인권위 공동진행 '손배가압류 GV진행'
운영	운영위원회 회의		수시	10건
	진상조사소위원회 활동		수시	2017.3.16. 회비반환소송 2017.10.12. 명예훼손 손배소

5. 주요활동 보고

■ 모금활동

[손잡고CMS] 지난 1년, 손잡고를 후원해주신 회원여러분 고맙습니다

2017년 손잡고와 손을 잡아주신 회원여러분 덕에 더 많은 시민들과 손배소 피해현장의 손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내부 정비로 별도의 회원배가를 위한 활동을 하지 못했음에도, 꾸준히 법제도개선활동, 현장지원활동 등을 펼친 결과 ‘손잡고’의 활동이 알려지면서 자발적인 후원가입이 늘었습니다. 전년도보다 49명의 회원이 더 늘어 총 258명의 회원 손잡고를 후원합니다. 2018년에는 회원배가 활동을 더해서 시민모임 손잡고에 회원참여하는 시민이 더 많이 늘어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회원여러분도 회원배가에 동참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후원가입 : <http://www.sonjabgo.org/index/grab/>)

2017년 손잡고와 손 잡아주셔서 고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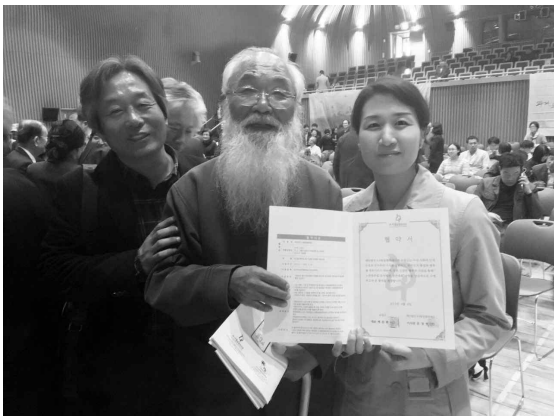
강문욱, 강버들, 강성덕, 강세웅, 강인수, 강정숙, 강태웅, 광동표, 광승규, 구교인, 구두희, 권경희, 권미순, 권미영, 권일, 권주용, 권태훈, 길래현, 김강학, 김경동, 김경래, 김경훈, 김경희, 김규성, 김금주, 김남오, 김대용, 김동수, 김동원, 김동필, 김명옥, 김미란, 김미숙, 김미영, 김민주, 김상구, 김상용, 김상은, 김서현, 김성광, 김성원, 김성진, 김세진, 김소리, 김수경, 김수희, 김숙연, 김아리, 김언경, 김연우, 김영민, 김영숙, 김영재, 김옥경, 김옥길, 김우, 김윤미, 김윤수, 김은실, 김은아, 김은희, 김이종, 김점숙, 김정근, 김종원, 김종채, 김종환, 김지방, 김지숙, 김진경, 김진이, 김창선, 김채빈, 김현정, 김호규, 김호정, 노미선, 노영숙, 노현아, 류성훈, 문근숙, 문기주, 문연수, 문종찬, 민현수, 박경은, 박근용, 박다정, 박래균, 박민, 박민규, 박배균, 박병우, 박상근, 박석운, 박선유, 박성호, 박소연, 박영미, 박영희, 박재필, 박정만, 박정희, 박정희, 박종길, 박채은, 박철민, 박태규, 박태현, 박혜진, 박희송, 박희영, 박희정, 배지훈, 배춘환, 백영화, 변영학, 변정운, 변지현, 서진숙, 서찬욱, 서한나, 석권호, 선혜란, 성지민, 송경숙, 송규영, 신세민, 신영옥, 신정웅, 신희영, 심우성, 심춘복, 심희준, 안성희, 안순호, 안영철, 안진걸, 양동오, 엄기정, 오세연, 오소영, 오춘상, 오학준, 원동석, 유연석, 유현웅, 육춘영, 윤여철, 윤인중, 윤지선, 윤지영, 은수미, 이갑호, 이건민, 이경숙, 이경심, 이근탁, 이기찬, 이남국, 이남신, 이달별, 이대희, 이덕희, 이동철, 이명재, 이미숙, 이미옥, 이보미, 이상민, 이서영, 이선영, 이선주, 이설희, 이성곤, 이성하, 이수진, 이수호, 이승근, 이승한, 이승훈, 이재자, 이양구, 이용석, 이우경, 이윤주, 이은미, 이인용, 이재형, 이정연, 이정현, 이조은, 이종희, 이지연, 이진아, 이창근, 이충호, 이태호, 이해영, 이현욱, 이현진, 이호건, 임미선, 임지아, 장동엽, 장석우, 장인숙, 장지선, 전현경, 정수경, 정우민, 정준호, 정현주, 정홍조, 조경애, 조기선, 조동희, 조미선, 조민혁, 조선희, 조승희, 조은하, 조지훈, 조철호, 주윤아, 주재완, 지민선, 진기숙, 차진각, 최명희, 최보민,

최상하, 최수미, 최여울, 최용규, 최용근, 최은배, 최은비, 최의왕, 최전돈, 최정운, 최창수, 탁선호, 하나, 하해성, 한봉희, 한재홍, 함점순, 허경훈, 허종석, 허지웅, 헌승건, 홍성일, 황경순, 황규태, 황은숙, 황정인

[4.9통일평화재단] “일곱번째 동행”

재단법인 4.9통일평화재단(www.49peace.org)은 1975년 4월 9일 박정희 군사 독재정권에 의해 조작 처형되었던 이른바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을 기억하고, 희생된 분들의 정신을 계승해 우리사회의 민주주의와 통일·평화, 인권운동에 기여하고자 2006년 설립된 비영리재단입니다. 우리 사회의 인권수호 및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여 한반도의 통일과 평화를 위한 개인 및 단체의 다양한 공익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동행’이라는 이름의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손잡고는 2017년 제3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개최를 앞두고, 4.9통일평화재단 “일곱번째 동행”에 공모사업 지원을 했습니다. ‘민주주의’분야에 공모사업이 선정되어 총 45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았습니다. 해당 사업비는 모두 제3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의 주요 지출부분인 ‘심사비’와 ‘영상제작비’로 사용되었습니다.



[인권재단사람] “장기해고자 특별지원”

재단법인 인권재단사람은 재정이 열악한 인권활동가와 인권단체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자 2004년 설립된 비영리재단입니다.

손잡고는 2017년 3월, 세아제강 장기해고자 김정근 씨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 지원사업을 인권재단사람으로부터 제안받고, 실행했습니다. 김정근 씨는 1985년 4월 25일 세아제강의 전신인 부산파이프에서 부당해고됐습니다. 또한 기업들이 작성하던 ‘감시명단’에 기록돼 재취업조차 불가능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후 김정근 씨는 30년이 넘는 시간동안 ‘부당해고’, ‘노동자 블랙리스트’ 문제들을 알리며 노동운동을 해왔습니다. 사측은 2009년 6월 국무총리 소속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에서 부당해고 복직 권고를 받고도 8년여의 시간동안 이행하지 않고 버텼습니다. 김정근 씨는 1인시위, 양화대교 고공농성 등을 통해 사측과 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이처럼 30여년 간의 장기해고 및 재취업방해를 버티며 사회구조적 문제를 알려낸 김정근 씨에게 ‘장기해고자생계비지원금’을 전달했습니다.

[법률기금모금] 인지대만 수천만원, 시민의 힘으로 항소!

비정규직 파업에 연대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20억?

상고비용이 없어 빛을 따왔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

이게 법치주의 인가요?

—

현대차 비정규노동자의 불법파견 정규직화 요구 파업을 지원한 4명에게 20억 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4명은 비정규직 투쟁을 지원해 온 연대자, 함께 싸운 정규직이었습니다.

현대차가 비정규노동자에게 부과한 손해배상액이 200억원을 훌쩍 넘습니다. 노동자들은 소송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인지대)이 없어 재판을 더 이어가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당장 20억 원 선고에 대해 상고하기 위해서는 인지대만 1,500만 원 넘게 필요합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를 막는 손배, 이제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손해배상 상고비용(인지대 약 1,500만원) 마련에 힘을 보태요
원칙과 의리를 지킨 이들이 포기하지 않도록 힘을 모아주세요!

모금계좌 국민은행 533302-01-358495 오진호(비정규직없는 세상)
신한은행 100-032-129829 예금주: 손잡고
모금시한 2017년 9월 10일(일)까지

'모욕' 1억, '출판물 명예훼손' 4억, '업무방해 및 건조물 침입' 22억 하이디스 조합원 손해배상 청구액 총 27억.

하이디스 부당해고 항소비용 모금에 동지들의 마음을 모아주세요.

대법 명퇴자본에 맞서 투쟁을 시작하지 3년째.
민사소송에서 해고 부효 판결을 얻어냈지만 하이디스 사측은 역시나 항소했고, 행정법원은 사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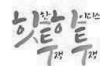
가진 것이 돈 뿐인 회사는 소송도, 항소도 너무나 쉽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내몰린 노동자들은 사측의 무차별 고소, 고발에 대응하기도, 부당한 판결에 항소하기도 버겁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출 수는 없기에, 쓰러지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려 합니다.

우리에게는 연대의 힘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이디스 노동자가 다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연대의 힘으로 밀어줄 수 있도록 손을 잡아주세요.

모금액 항소비용 1,450만원
모금기간 2017. 9. 11 ~ 9. 30
입금계좌 농협 301-0183-6581-61 (민주노총미천여주양평지부)



2017년 유독 손해배상가압류 사건에 대한 선고가 많이 났습니다. 특히 현대차 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손배소 선고가 연초부터 연달아 있었습니다. 항

소와 상고를 해야 하는데, 신청기간인 보름 안에 수천만원에 달하는 인지대와 소송비용을 마련하기란 평범한 노동자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때문에 몇 개의 판결은 상고를 포기하고 수십억원의 배상액을 노동자 개인이 짊어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손잡고는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등 시민사회, 학계와 힘을 모아 법률비용마련을 위한 ‘긴급모금’을 진행했습니다. 2010년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파업에 연대했다는 이유로 연대자 4인에게 청구된 20억원의 손해배상사건이 2심 패소의 부당함을 알리고, 상고비용 약 1,500여만원을 모으기 위한 모금을 시작했습니다.

2017년 8월 31일부터 9월 10일까지(손잡고는 6일까지만 모금을 받았습니다) 열하루만에 ‘손잡고’와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두 단체의 모금계좌로 개인 및 단체후원 192건, 총 18,148,227원(8,338,227/손잡고 + 9,810,000/비없세)이 모금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보름 안에 1,500만원을 모을 수 있을까 우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걱정과 달리 손잡고 회원을 비롯해 많은 시민들이 사안에 공감하고 모금에 참여 해주셨습니다. 시민들은 모금뿐 아니라 직접 SNS를 통해 참여를 이끌어내는 등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서주셨습니다.

“이런 일을 두고 보면 당사자들의 삶이 파탄나는 것은 물론이고, 앞으로 이런 불법 반인권적인 일에 대해 법적인 대응조치 엄두를 낼 수 없도록 하려는 기업주들의 절망훈련, 포기 훈련에 굴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 시도가 씨알도 먹히지 않는다는 걸 가르쳐주어야 합니다(공유정옥 페이스북).”

“제3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대회에 참가했던 충남대학교 법전원 서범진, 고혁준, 이수열입니다. 저희가 지난 대회에서 좋은 변론을 펼친 점이 있다면 이는 어디까지나 싸우는 노동자들로부터 배우려 노력하고, 또 노동자들의 편에서 법을 공부하려 했던 덕이라고 생각합니다...(중략) 저희가 이번에 받게 된 상금을 개인들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포스트에 적힌 모금계좌로 적으나마 연대의 마음을 보냈습니다. 해당 재판에서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서범진).”

“수천만원 소송비용 때문에 항소를 포기하면 수십억원의 배상액을 노동자 개인이 짊어져야 합니다(문성근 @actormoon).”

보내주신 모금액은 모금종료 후 전액을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의 변론을 담당하는 ‘법무법인 대안’으로 송금했습니다. 법률기금 사용 후 남은 금액(모금액에서 이 사건 인지대와 송달료 액수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는 모금참여자의 의사를 확인해 같은 시기 비슷하게 법률비용 문제로 곤란을 겪고 있는 하이디스지회의 법률비용으로 사용했습니다.

2017년 9월 당시, 하이디스지회의 해고노동자 58명은 부당해고구제 소송에서 민사재판부로부터 1심 승소판결 받았지만, 2달여 만에 같은 사안을 두고 행정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받았습니다. 항소를 하기 위해 행정소송 인지대 1,450만원을 2주 안에 마련해야 항소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지회에서 직접 모금을 받기 시작해, 손잡고도 ‘법무법인대안’으로부터 받은 모금액을 하이디스지회로 전달했습니다.



동참해주신 여러분의 십시일반으로 긴급 상고비용을 마련하고 두 군데 노동현장에 법률기금을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짧은 기간 마음을 모아준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법률기금 긴급모금]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1) 개인(178명, 익명 포함)

가은경, 강근도, 강민정, 강화수, 고영남, 공문식, 공유정옥, 권민성, 권주용, 권차량, 권혜반, 김경수, 김경창, 김대현, 김두나, 김미나, 김미려, 김병국, 김상희, 김서중, 김성재, 김성희, 김소진, 김수연, 김영주, 김예준, 김용대, 김용주, 김원규, 김인호, 김재완, 김정숙, 김정에, 김종민, 김종서, 김준규, 김차곤, 김창조, 김한아, 김해인, 김현경, 김혜경, 김혜진, 김호정, 김효정, 남우근, 류동연, 문금지, 문기주, 문병효, 문성근, 문정주, 문지선, 문현, 민경란, 민변노동위원회, 박근영, 박봉정숙, 박상옥, 박새롬, 박성우, 박재준, 박재현, 박지현, 박찬희, 박채은, 박철, 박희병, 박희영, 배예주, 배춘환, 백낙청, 변창기, 서득제, 서범진(고혁준, 이수

열), 서용순, 서찬욱, 손은우, 송기훈, 송성훈, 신민호, 신순영, 신진영, 안진걸, 양승엽, 양현, 엄진령, 오세연, 우지연, 우희수, 울산JYP, 유수경, 유수경, 윤애림, 윤원필, 윤운기, 윤정, 윤종욱, 윤혜정, 은연지, 이건민, 이기대, 이명순, 이명재, 이민숙, 이부영, 이상기, 이서영, 이성훈, 이양구, 이용석, 이원우, 이은희, 이재혁, 이정아, 이호중, 이효상, 이흥희, 임우재, 임정민, 임정선, 임호풍, 장문석, 장수국, 전창민, 전한열, 전해원, 정나위, 정대성, 정우석, 정찬미, 정홍조, 정희진, 조경란, 조경배, 조돈문, 조명숙, 조석현, 조승현, 조영호, 조우영, 조은실, 조은혜, 조정우, 조지혜, 채효정, 최관호, 최도은, 최선화, 최영순, 최용규, 최의왕, 최은실, 최진이, 최창민, 최한미, 최홍엽, 최효성, 하대용, 하미란, 하해성, 한상덕, 허진남, 홍재관, 홍정수, 황명식, 20억손배, None, 건투를 빕니다, 모금, 상고모금, 상고포기마세요, 손배소가압류없, 손잡고후원, 연대, 연대합니다, 응원합니다, 카페여행자, 희망을 노래합니다, 힘내세요, 힘내세요, 힘내세요, 힘내세요, 힘내요.

2) 단체(14개 단체)

공익인권법재단공감, 금속노조사무처,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법률원(민주노총법률원, 금속노조법률원, 공공운수노조법률원), 세종호텔노조, 아산사내하청, 올리베따노수녀회, 인권위분회, 전교조서울중등관동, 제주마음이, 진보교육연구소, 청주대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판매연대지회, 현대차 공동행동

[해피빈재단] 모금플랫폼 확장, 손잡고 더 널리 알리기!



1867억, 버랑끝 손배소 노동자의 손을 잡아주세요 완료

손잡고는 '손배가압류를잡자!손에손을잡고'의 줄임말로,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 행사를 방해하는 손배가압류와 업무방해죄 관련한 법과 제도를 바꾸는 시민모임입니다.

모금기간	2017.07.28 ~ 2017.07.28
현재모금현황	20,000,000원 (1명) 기부율 : 202%
목표모금액	9,900,000원

모금소식 (0)

최종후기 작성전



SK텔레콤 노동조합이 응원합니다.

2017.07.28 17:37 | 신고

SK텔레콤 노동조합님 20,000,000원 후원

2017년 7월, 손잡고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네이버 해피빈재단입니다. 해피빈재단 기부회원 중에 손잡고를 후원하고 싶다는 기부자님이 계신데, 해피빈재단 단체가입이 되어있지 않아 연락드립니다.”

전화를 받고 매우 설레었습니다. 손잡고의 활동을 알고 후원하고 싶어하는 분이 계시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네이버를 통한 모금은 그동안 생각해보지 못한 방

식이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 길로, 운영위 회의를 거쳐 손잡고는 ‘해피빈재단 모금단체’로 등록절차를 밟았습니다.

(<http://happylog.naver.com/sonjabgo47/rdona/RdonaDoneList.nhn>).

해피빈재단에 손잡고를 검색하면 위 링크가 뜹니다. 링크에 990만원을 목표금액으로 해 모금함을 만들었습니다. “1867억, 벼랑끝 손배소 노동자의 손을 잡아주세요”라는 제목을 달고, 그간 손잡고의 활동과 손배가압류의 피해현황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일주일도 안 되어 목표금액을 202% 달성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해피빈 재단으로 기부의사를 밝힌 단 1명은 알고보니 ‘노동조합’이었습니다.

“SK텔레콤 노동조합이 응원합니다.” SK텔레콤 노동조합은 지난 2014년 아름다운재단을 통해 모금한 ‘노란봉투캠페인’에도 참여한 바 있습니다. SKT노조에 손배가압류는 업습니다. 그러나 손배가압류가 노동3권, 즉 노동자의 권리행사와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하고, 가족의 삶까지 망가뜨린다는 점을 잘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다고 합니다. 노동조합의 지지를 받은만큼 더욱 노동3권이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당 기금은 2018년 동안 법제도개선활동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 캠페인 활동

[모의법정] 이번엔, 노조파괴 시나리오 주제로 경연 펼친 예비 법조인 15팀!



손잡고는 제3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공동 주최로 참여했습니다. 3회를 거치며 ‘노란봉투법 모의법정’은 국내에서 노동법, 특히 파업 등 쟁의 행위를 한 노동자에게 제기되는 손해 배상 및 가압류를 다루는 유일한 모의

법정 경연대회로 확실히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손잡고의 법제도개선활동의 일환으로, '2014노란봉투캠페인'의 지원을 받아 2015년 첫 대회가 개최된 이래 회원 여러분을 비롯해 시민들의 후원으로 매년 개최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모의법정은 '4.9통일평화재단'이 후원해 의미가 컸습니다.

5월 전국 로스쿨에 공고를 낸 후, 15개 팀이 예선에 참여했고, 8팀이 본선에 올랐습니다. 본 대회와 시상식은 8월 19일 서울대학교 우천법학관에서 열렸습니다.

제3회 모의법정의 경연문제의 주제는 유성기업과 창조컨설팅으로 대표되는 '노조파괴 시나리오'와 '손배가압류'입니다. 참가팀들은 △파업, 직장 점거 등의 쟁의 행위가 정당한가, △20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액이 적정한가, △노동권의 관점에서 개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것이 정당한가, △노조의 쟁의행위를 방해하는 내용의 자문과 문건은 정당한가 등을 두고 치열한 변론을 펼쳤습니다.

서면심사와 본선심사 모두 심사과정에서 참가자의 인적사항을 가리고 번호를 부여해 심사를 진행해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서면심사에서는 소장 과 답변서에서 형식적 기재사항(당사자표시, 청구취지, 입증방법, 첨부서류 등)을 준수하였는지, 쟁점을 잘 파악하고 있는지, 논리적이면서도 창의적인 주장 전개가 있는지 등이 주요 평가기준이었습니다. 서면심사위원으로는 탁선호 변호사, 최용근 변호사, 최석환 명지대 법학과 교수가 참여했습니다.

본선재판부는 김선수 변호사(심사위원장), 강문대 변호사, 김태욱 변호사, 박제성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윤애림 서울대고용복지법센터 연구위원, 최은배 변호사가 참여했습니다. 심사위원장 김선수 변호사는 심사강평을 통해 “적어도 노동3권에 있어서 대법원의 판례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고정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선수 변호사는 “다만, 변호사 입장에서는 재판부로부터 판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판례의 변경 필요성을 설명할 때 기왕이면 판례나 현재의 입장의 틈을 파고 들면서도 재판부가 받아들일 수 있는 논거를 제공해야 한다”며 무리한 주장에 대해서는 경계해야 한다고 덧붙이며 3회 경연대회에 대한 평가를 마쳤습니다.

최우수상인 국회의장상은 3001번 충남대 로스쿨의 서범진, 고희준, 이수열 씨가 수상했습니다. 서범진 씨는 수상소감을 통해 “노동운동과 노동법제정 역사를 봤을 때 변화는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위해 싸울 때 일어났다”며, “앞으로 노동자들이 스스로 싸우는 것을 지지하기 위해서 법조계에서도 할 일이 많다고 생각

한다. 함께 배우고 협력하고, 선배 법조인들과 활동가들과 함께 사회를 더욱 낮게 만들어 가는데 힘을 보태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우수상인 국회환경노동위원장상은 3014번 고려대 로스쿨의 강서진, 이정선, 김수연 씨가 수상했습니다. 강서진 씨는 “실제 변론을 준비하고, 직접 사건을 겪었던 노동자 분들을 접하고 나니 앞으로 법률가로서 어떤 자세로 사건에 임하고 의뢰인들을 대해야 하는가에 대해 많은 생각을 갖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본 대회에 참여한 예비법조인들이 노동법에 관심을 갖게 된 점 그 자체만으로도 대회의 성과라고 할 것입니다. 대회 참가자 가운데 미래 노동법 전문가들이 많이 탄생하길 기대합니다.

한편, 여전히 대회의 아쉬운 점으로 ‘대회가 더 알려졌으면 좋겠다’, ‘홍보기간을 늘려 더 많은 로스쿨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길 바란다’는 등 대회 인지도와 관련한 한계를 지적받았습니다. 제4회에서는 더 많은 로스쿨과 예비법조인들이 노동법에 관심갖고 본 대회에 참여하기를 기대하며,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제2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 함께한 사람들]

- 주최 : 손잡고, 서울대학교공익인권법센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후원 : 4.9재단(사업비), 국회의장 정세균(시상), 국회환경노동위원장 홍영표(시상)
-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집행위원회 소개
 - 집행위원장 : 조국(손잡고 운영위원/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장) / 대리: 송영섭
 - 집행위원 : 배춘환, 박래군, 박병우, 안진걸, 윤지영, 이남신, 양현아(서울대 교수)
 - 간사 : 김영중(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윤지선(손잡고)
 - 문제출제위원 : 탁선호(변호사), 최석환(명지대 법학과 노동법 교수), 최용근(변호사)
 - 재판부 : 김선수(재판장/ 변호사), 강문대(변호사/민변), 김태욱(변호사/금속법률원), 박제성(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윤애림(서울대 고용복지법센터 연구위원), 최은배(변호사, 전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연극 노란봉투 재공연] 블랙리스트 연극 '노란봉투', 광장을 넘어 국회까지!



제1회 손잡고연극제 창작물, 연극 <노란봉투>! 노란봉투캠페인 일환으로 진행된 2014년 초연이후 공연판권을 '극단 연우무대'가 받아 2015년 재공연까지 호평을 이끌며, 그해 '한국연극베스트7'까지 수상했습니다. 연극 시나리오를 쓴 이양구작가는 2017년 운영선 연극상을, 전인철 연출은 2017년 동아연극상 연출상을 받는 등 작품성까지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노란봉투가 '반짝반짝' 빛났던 이면에 '블랙리스트'라는 검은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었던 사실 아셨나요? 극단 연우무대가 재공연을 무대에 올린 이후 박근혜정부 문화계 블

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리며 고초를 겪어야 했는데요. 블랙리스트 사태가 알려지자 광장에 '블랙텐트'가 설치되고 문화예술계 종사자들이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연극 <노란봉투>는 광장 '블랙텐트' 공연의 일환으로 2017년 2월 14일부터 17일까지 4일 간 광장의 촛불시민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그림자를 걷어내고, 연극 <노란봉투>는 '극단연우무대'의 40주년 기념공연으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2017년 4월 25일부터 5월 14일까지 3주간 공연됐습니다. 손잡고도 '후원'으로 참여해 함께 홍보하고, 관객과의 대화를 통해 노동현장과 관객의 손을 잡았습니다. 쌍용자동차지부, 유성기업지회, 동양시멘트지부, 하이디스지회 등이 관객을 만났습니다.



그대로 휴식기를 가질 거라 생각했지만, 이번에는 국회의 문을 두드리게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강병원, 김병관, 박광온, 박정, 박주민, 유

은혜, 이학영, 진선미, 최인호 의원과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공동주최로 나서 2018년 1월 29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 국회특별공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날 공연은 jtbc 소셜라이브의 한 코너인 ‘소셜극장’으로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더 많은 시민여러분을 만날 기회를 얻었습니다.

[손잡고연극제] ‘노조를 파괴해드립니다’ 창조컨설팅

2017년에는 제2회 손잡고연극제도 개최했습니다. 제1회 연극제 참여한 연극



인들이 당시 수익 일부를 차기연극제를 위한 사업기금으로 기탁했는데요, 이 기금을 밑거름 삼아 손잡고는 제2회 손잡고연극제를 준비했습니다. 연극 <노란봉투>의 이양구 작가가 작품기획과 시나리오에 함께 참여했는데, 1회 공연 준비 당시 노동현장 취재 과정에서 알게 된 ‘창조컨설팅’을 소재로 손잡고에 기획안을 제안했습니다.

작품명은 <작전명 : C가 왔다>입니다. ‘노조 파괴’로 대표되는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을 모티브로 만든 작품입니다. 2017년 5월 25일부터 6월 11일까지 약4주간 관객을 만났습니다.

‘극단 연우무대’에서 무대를 후원해주었습니다.

원래 제2회 손잡고연극제는 2016년 가을을 목표로 개최시기를 잡았지만, 2016년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지며 공연시기를 2017년으로 연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덕분에 SJM 노동조합 뿐 아니라 창조컨설팅 문제를 표면에 드러낸 유성기업지회부터, 가장 최근 노조파괴 사업장인 갑을오토텍지회 사례까지 폭넓게 조사해 연극의 사실성을 더 높일 수 있었습니다.

연극제작은 ‘극단 몽씨어터’가 맡았습니다. 이양구 작가의 현실성 풍부한 시나리오가 이동선 연출을 만나 풍자와 해학이 더해졌습니다. 작가와 연출은 자본에 기생하는 기생충 엘리트와 숙주기업의 공생관계, 노조파괴에 있어서 10전 10승 무패의 화려한 전력을 자랑하는 컨설팅 회사와 노조파괴를 의뢰하는 기업이 몰래 벌이는 갑질 시나리오의 패턴을 무대에서 가감없이 드러냈습니다. 노동파괴 현장

의 상상을 초월하는 슈퍼 갑의 일방적 횡포에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그 피해 대상이 될 수 있는 천박한 자본주의의 시대의 현실을 보여주고자 했다고 합니다. 연극 <노란봉투>가 손배가압류로 고통받는 노동자의 시각에서 극을 전개했다면, <작전명 : C가 왔다>는 가해자의 시각으로 극을 풀어내 독특한 시선으로 사건을 보여주었다는 평입니다.

손잡고와 노동현장은 연극 <C가 왔다>를 통해 관객여러분과 노조파괴에 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제2회 손잡고연극제 : 함께한 사람들]

- 작 : 이양구
- 각색/연출 : 이동선
- 출연 : 구선화, 이승훈, 최영도, 성열석, 양운혁
- 주요스텝 : 조연출_박세연, 무대디자인_박상봉, 의상디자인_우영주, 조명디자인_김성구, 영상_김수림, 포토_최성운, 그래픽디자인_황가림, 음악_엄태훈, 기획_임성덕, 김연빈, 손잡고_윤지선
- 자문 : 안성희 노무사
- 제작 : 극단 몽씨어터
- 주관 : 손잡고
- 후원 : 극단연우무대

■ 법제도개선 활동

[노동현장간담회] 손잡고 활동의 중심, '노동권 지킴이'

손잡고 노동현장간담회는 손배소라는 한정된 주제를 가지고 피해자 집단과 이를 지원하고 여론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시민단체가 손잡고 대응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2017년 기준 쟁의활동을 사유로 한 노동자 손배가압류는 민주노총 소속 노동

현장만 해도 25곳에 달합니다. 손배가압류는 조합원 개인과 가정의 생존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할 뿐만 아니라, 사실상 경제권을 빌미로 노동조합활동을 못하도록 권리를 제약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 노동현장의 숫자가 전체 노동현장의 숫자에 비하면 소수에 해당하고, 노동조합보다 조합원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노동계에서 손배가압류 문제는 대체로 직접 피해를 입은 당사자의 문제에 국한되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손배가압류 문제는 ‘소통’과 ‘연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당사자가 직접 피해를 드러내지 않으면 아예 알려지지 않거나, 알려진다 하더라도 노동이슈에서 뒤로 밀려 주요의제로 채택되지 못하기도 해 벌어지는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손잡고는 노동현장간담회에서 매달 1회 노동현장 재판상황, 손배가압류 피해 조합원 실태를 공유합니다. 신고 전 성명서, 탄원서 조직, 기자회견, 재판소식과 결과에 대한 보다 빠른 전달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이를 재판부에 전달하는 등 각 노동현장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활동을 지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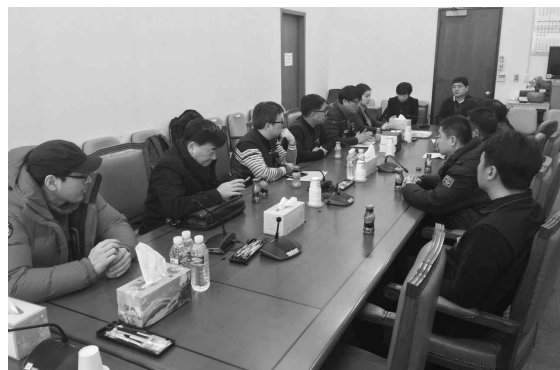
한편, 손잡고가 노동현장간담회를 통해 투쟁사업장의 경험을 공유받아 활동의 토대를 마련하기도 합니다. 손배가압류는 대체로 노동3권 행사를 빌미로 가해됩니다. 이는 달리 말하면 노동3권을 지키기 위해 쟁의활동을 열심히 한 노동현장들이 손배가압류라는 노동탄압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듯 현장의 ‘노동권 지킴이’들이 매달 간담회를 통해 한 자리에 모이기 때문에 노동현장의 경험은 손잡고의 활동에 큰 자원이 됩니다. 2017년에도 부천시역지부 원종복지관과 같이 민주노총이나 손잡고가 파악하지 못했던 손배가압류로 고통받는 다른 노동현장의 소식을 알렸습니다. 또한 간담회를 통해 손배가압류 뿐 아니라 각 단위별 상황에 맞는 노동탄압 대응 방안을 서로 공유하기도 합니

다. 무엇보다 손잡고의 주요 활동 목표인 법제도개선활동에 피해당사자로서 기자회견, 토론회, 간담회, 입법청원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 제도개선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가장 앞장 서 알리고 있습니다.

손잡고 역시, 노동현장 당사자의 목소리를 적극 활동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했습니다. 2017년에도 노동현장간담회에 박병우, 윤지영, 이남신 운영위원이 담당자로 참석해 노동현장간담회에서 도출된 의견이나 현장의 절박한 사항이 손잡고 활동에 반영되도록 하는 한편, 현장에서 직접 법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2017년에는 매달 열리는 정기간담회 외에도, 입법활동을 위한 국회면담과 대선기간 대선주자 특별면담 등을 포함해 특별간담회 5회를 추가 진행했습니다.



[2017년 노동현장간담회]

총 16회 : 정기간담회 11회, 특별간담회 5회 진행

- 2017.1.17. [노동현장간담회] 제17차 손잡고노동현장간담회 진행
- 2017.2.7. [노동현장간담회] 홍영표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간담회
- 2017.2.14. [노동현장간담회] 제18차 손잡고노동현장간담회
- 2017.3.4. [노동현장간담회] 이재명 대선주자-손배소 피해자 간담회
- 2017.3.14. [노동현장간담회] 제19차 손잡고 노동현장간담회 회의
- 2017.4.11. [노동현장간담회] 제20차 손잡고 노동현장간담회
- 2017.5.16. [노동현장간담회] 제21차 노동현장간담회 회의
- 2017.6.13. [노동현장간담회] 제22차 손잡고노동현장간담회
- 2017.7.18. [노동현장간담회] 제23차 손잡고노동현장간담회 회의
- 2017.7.26. [노동현장간담회] 쌍용차지부 노동조합 사무실 방문
- 2017.8.8. [노동현장간담회] 손배가압류 노동교섭 대응 긴급 손배소 노동현장간담회
- 2017.8.22. [노동현장간담회] 제24차 노동현장간담회

- 2017.9.27. [노동현장간담회] 제25차 손잡고노동현장간담회
- 2017.11.15. [노동현장간담회] 제26차 노동현장간담회
- 2017.12.9. [노동현장간담회] “비정규직 모여라” 집담회 ‘손배가압류’ 파트, 손잡고 노동현장간담회 단위 참여
- 2017.12.20. [노동현장간담회] 제28차 손잡고 노동현장간담회

[손배피해기록] 손배가압류가 개별당사자에게 미치는 피해를 기록하다

노동현장간담회가 한 달에 한 번 각 피해 노동현장의 간부들이 참여해 노동조합의 상황을 소통하는 것에 반해 개개인이 느끼는 손배가압류의 고통까지 상세히 담고있지 못한 점을 고려해, 개별당사자를 대상으로 한 ‘손배피해기록’을 시작했습니다.

기회가 닿는 대로 현장 손배당사자들을 방문해 손배가압류로 받고 있는 고통에 대한 증언을 듣고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해당 기록의 일부는 당사자의 허락을 받고 언론에 ‘인터뷰’형태로 기고하거나, 언론사 함께 당사자의 직접기고를 기획하는 방식으로 대중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2017년 손배피해기록-피해당사자면담]

총 9회 : 현장방문인터뷰 진행

- 2017.1.5. [손배피해기록] 현대자동차비정규직 손배당사자 농성장 방문인터뷰
- 2017.3.22. [손배피해기록] 갑을오토텍지회 손배가압류 피해자면담
- 2017.5.23. [손배피해기록] 의료연대 대구지부 경북대병원분회 방문 및 면담
- 2017.6.17. [손배피해기록] KEC지회 방문 손배소 임금압류당사자 인터뷰
- 2017.10.24. [손배피해기록] 하이디스지회 손배가압류 당사자 인터뷰
- 2017.11.10. [손배피해기록]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 손배피해당사자 인터뷰
- 2017.11.11. [손배피해기록] 울산과학대학교지부 가압류피해당사자 인터뷰
- 2017.11.23. [손배피해기록] 원종복지관 손배가압류 피해당사자 인터뷰
- 2017.12.22.-23. [손배피해기록] KEC지회 손배청구 임금압류 당사자 인터뷰

[2017년 손배현황발표] 손배청구금액 1,867억, 가압류 180억!

2017년 6월 28일, 손잡고는 손배가압류 피해노동자들과 함께 매달 진행한 간담회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2017년 손배가압류 현황을 정리해 발표했

습니다.



손잡고와 민주노총이 공동집계한 노동조합 및 조합원 개인에게 청구된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총 25개 사업장, 65건, 총 청구금액 1,867억여 원에 달합니다. 가압류는 총 180억여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노동자 손해배상 가압류 집계 사상 금액 면에서 최고 수치입니다. 아래 표-1의 연도별 민주노총 집계 현황에 따르면, 이명박 정권 이후 사업장의 손해배상청구 금액이 일천억 원대에 진입한 이후 박근혜 정권에서 최고치가 두 번 갱신됐습니다. 2016년 집계 기준과 비교해도 건수와 금액 모두 늘었습니다.

일부 손배소가 해소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보건의료노조 고려수요양병원지부는 1심 승소 후 회사가 항소 취하해 종결됐습니다. 그러나 이같이 법적 해결을 통해 해소된 경우는 극히 드문 사례입니다. 금속노조 스타케미칼지회(파인텍지회), 보건의료노조 속초의료원지부는 교섭으로 상호 민형사상 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하며 해소했습니다.

2017년에도 해소된 사건보다는 추가된 사건이 더 많았습니다. 추가된 사업장으로 금속노조 하이디스지회, 금속노조 갑을오토텍지회, 공공운수노조 경북대병원분회, 사무금융노조 JT친애저축은행지회 등이 있고, 철노도조에 2016년 파업에 대한 소가 추가 확인되며, 사업장 수와 건 수가 늘었습니다.

2017년 추가된 손배청구 사례의 경우, ① 모욕, 명예훼손, 물리적 충돌 없는 업무방해 등 더 쉬워진 손해배상청구(하이디스), ② 청구취지변경으로 인한 금액 확대(철도, 동양시멘트), ③ 직장폐쇄 이후 공장점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갑을오토텍) 등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편, 법원이 조정을 통해 특정 기간동안 금액을 정해두고 임금압류 조치한 사례가 처음 등장했습니다. 금속노조 KEC지회는 '3년간 30억 원 배상하라'는 법원

조정으로 회사가 2016년 10월부터 손배 당사자 가운데 재직자의 임금을 최저임금 수준을 제하고 압류조치하고 있습니다. 잔업수당, 상여금, 연차수당 등 수당뿐 아니라 승소를 통한 체불임금, 법률비용까지 회사가 압류하고 있으며, 퇴사하지 않을 경우, 당사자들은 최저임금 수준으로 3년을 보내야 합니다.

[표-1] 민주노총사업장 대상 연도별 손해배상 청구액(2017년 추가)

(* 민주노총 2016 정책자료집 참조)

연도	손배청구총액	손배청구 사업장 수
2002. 6.	345억 원	39개
2003. 1.	402억 원	50개
2003.10.	575억 원	51개
2011. 5.	1,582억7천만 원	12개
2013. 1.	1,307억 원	16개
2014. 3.	1,691억6천만 원	17개
2015. 3.	1,691억 원	17개
2016. 8.	1,521억9,295만 원	20개(57건)
2017. 6.	1,867억6,415만 원	24개(65건)

[표-2] 민주노총사업장 산업별/지역별 손해배상가압류 현황(2017) (* 민주노총-손잡고 집계)

조직별			손배가압류금액		
연맹	사업장수	건수	청구금액	선고금액	가압류액
금속	14	52	94,881,008,838	37,795,894,627	4,647,582,619
공공	4	7	65,397,968,000	641,857,168	10,484,919,528
언론	2	2	20,010,220,000	-	2,250,000,000
강원영동	1	1	5,020,780,228	-	590,000,000
울산	1	1	767,000,000		
사무금융	1	1	300,000,000	-	-
총연맹	1	1	387,172,019		-
계	24	65	186,764,149,085		17,972,502,147

가압류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전월세 임차보증금 가압류 사례가 등장했습니다 (하이디스지회). 배우자 이름으로 된 임차보증금까지 가압류 대상에 올려두는 등

당사자 뿐 아니라 가정에 까지 불안감을 조성하는 가압류 행태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위 집계내역은 누적치로 모두 이명박-박근혜 정권동안 발생한 사건입니다(이전 정부 건은 사건 종료, 교섭 등으로 모두 종결). 이에 손잡고는 손배가압류를 ‘국민기본권 보장’, ‘노동존중’을 중요시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반드시 청산해야 할 지난정권 적폐 중 하나로 보고, 문재인 정부가 나서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해줄 것을 요구하는 대정부요구안을 마련해 양대노총과 함께 문재인 정부 ‘국민인수위’에 전달했습니다.

[법제도개선위원회] 20대 국회, 노란봉투법 재도전!

2015년, 노란봉투캠페인 참여 시민의 온기를 가득 담고 19대 국회의 문을 두드렸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그러나 당시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의 반대로 단 한 차례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된 것을 마지막으로 ‘법’이 되진 못했습니다.

박근혜 정권 내내 더 쉬운 해고, 평생 비정규직, 낮은 임금 등 노동자들은 점차 설 땅을 잃어가고 있던데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정경유착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어쩌면 노란봉투법의 19대 국회 입법 좌절은 예견된 결과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이 손배가압류 문제를 철저히 외면하는 동안 노동자 손배가압류는 역사상 최정점을 찍었습니다. 앞서 밝혔듯, 박근혜 정권 임기 말인 2017년 상반기 집계치가 누적청구금액 1,867억원으로 역대 최고치에 달했습니다.

손잡고는 ‘노란봉투법’을 재정비해 20대 국회의 문을 다시 두드리기로 했습니다. ‘손배가압류’ 관련 조항인 노조법 제3조를 개정해 ‘노동조합 활동’과 ‘노동조합 소속 개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집중강화했습니다(*자료집 뒤편 별첨자료 확인). 또한 신설조항으로 손배청구금액에 상한을 두도록 해, 불법행위라고 하더라도 노동조합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므로 노동조합 존립이 위협받지 않는 선을 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새로 태어난 ‘노란봉투법’은 2017년 1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의 문턱을 다시 넘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나도록 법안심사소위 논의조차 단 한차례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5년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가 다음과 같이 ‘노란봉투법’에 응원 영상을 보내온 바 있습니다.

“손해배상과 가압류의 남용은 노동3권을 무력화시키는 부당한 처사입니다. 이 때문에 많은 노동자들이 고달픈 싸움에서 승리하고도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절망 속에서 세상을 떠난 분도 여럿입니다. 수십억에 달하는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감당하지 못해 가족을 잃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국민의 힘으로 바꾸어 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힘 내십시오! 저도 <손잡고>의 발기인이 되었습니다. 노란봉투캠페인을 응원하고 동참합니다. 서로 손을 잡으면 더이상 혼자 아닙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시민들의 맞잡은 손을 이어받아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노란봉투법을 관철시켜 낼 것입니다. 반드시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노동자들의 삶을 지켜내겠습니다.

사람이 먼저인 세상, 그래서 노동자들이 행복한 세상, 우리 손으로 만들어 나갑시다. 고맙습니다.”

‘노동존중’을 강조한 문재인 당대표는 2018년 현재 대통령이 되었고, 정당은 여당이 되었습니다. 현 정부에서 반드시 입법까지 나아가도록 ‘노란봉투법’의 재도전을 여러분도 응원해주세요요.

[입법활동] 국회로, 거리로! 노란봉투법 함께 알리요



20대 국회 발의와 함께 손잡고는 국회로, 거리로, 노란봉투법을 알리기 위해 열심히 달렸습니다. 손배가압류 노동현장과 함께 광장에 나아가 2017년 1월부터 5월까지 15차례에 걸쳐 거리서명을 받으며 시민들에게 노란봉투법을 알렸습니다. 이와 동시에 온라인 입법청원도 시작했습니다.

법안을 설명하는 자료를 만들어 전문가 간담회도 가졌습니다. 특히, 여야 막론하고 환경노동위원회 노동소위원회 담당 국회의원들을 만나 손배가압류의 피해 현황과 법개정의 시급함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손잡고 뿐 아니라 노동현장도 별도로 기자회견을 열어 직접 피해상황을 알리고, 각 정당에 면담요청서를 넣는 등 보다 적극적인 입법활동을 펼쳤습니다.

2017년 대선 등을 거치며 노란봉투법 입법 이슈를 크게 이어가지 못했지만, 2018년 하반기 국회 상임위가 재정비되면 본격적으로 국회로, 거리로 다시 한번 더 나아가 법안이 입법되도록 최선을 다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도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손으로 노란봉투의 변화를 이끌어주세요

손배청구 1,600억원 가압류 175억원

국가와 기업이 국민에 행하는 손해배상소송 및 가압류는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경연으로 침해하는 악법입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국민의 요구입니다.

단결행위의 국민도 노동3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생전에 위협을 느끼는 일이 없게 하려는 자발적 권리 찾기입니다. 노란봉투법이 국회에 통과되면 국민의 권리가 한층 더 단단해집니다. 다른나라에서는 노동자의 권리를 손배가압류로 막지 않아요

독일 프라운스: '노조에 대한 손해청구는 기업 이사회만이 아니라 지재' 생글: '갈등만 부추기는 노조 손해청구 그만', 조함 규준에 따라 손해청구 제한(노동법)



우리에게 노란봉투가 필요합니다

변화 1. 노란봉투법은 기본권을 보호해요. 노동탄압을 손해배상청구 금지
 변화 2. 노란봉투법은 내 가족과 이웃을 지켜줘요. 노동자와 가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금지
 변화 3. 노란봉투법은 비현실적인 손배청구를 제한해요. 2016년도 1,600억원의 이제 그만!
 변화 4.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도 지켜줘요. 막대한 손배가압류 양세은 조합원들 강요 그만!
 변화 5. 노란봉투법은 우리나라를 한층 더 안전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아름다운 주권국가로 거듭나게 해요.

문의 | 손잡고 www.sonjaggo.org 02-725-4777

<p>헌법 위배 위험의 최고 손배가압류 표적이 된 노동자</p>	<p>발용자등과 최고노동금 국가손배 현황</p>	<p>정부 손해배상청구 약 11억 6780만원</p>
<p>노동 불렉리스트 blacklist: 표적을 찍어 사회적대외 공격을 가한다</p>	<p>노동자가 권리를 행사했을 때, 최저임금일만</p>	<p>표적은 생용자만이 아니다</p>
<p>“ 단결하지 마라, 동료의 죽음에 서러워하지마라, 피켓을 들지 마라, 구호를 외치지마라, ” 노동3권을 행사한 치료</p>	<p>손배가압류가 진행됐다 <<< 청구금액 1,600억 가압류 175억</p>	<p>바로 이게, 1-1악마의 제도 손배가압류</p>
<p>그게 바로, 손배가압류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이 필요한 이유입니다.</p>	<p>OECD 회원국 중 손배가압류를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p>	<p>노동자에게 손해배상을 이행해, 광부와 세금은 덜한다. "가만히있어라!"</p>

입법청원 바로가기 : www.bit.ly/노란봉투법_입법청원

[2017년 입법활동]

- * 법제도개선위 : 법안마련, 국회 면담, 정부부처 질의서 전달, 대선주자 질의서 전달 등
- 2017.1.6. [법제도개선위] 20대국회 노란봉투법 손잡고안 마련

- 2017.1.11. [법제도개선위] 노란봉투법TF 구성 및 긴급회의
- 2017.1.18. [법안발의] '노란봉투법' 20대국회 발의(대표발의 더민주 강병원)
- 2017.1.24. [법제도개선위] 홍영표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손잡고면담
- 2017.2.3. [법제도개선위] 임이자 환노위 간사(새누리당), 한국노총, 손잡고면담
- 2017.2.10. [법제도개선위] 하태경 환노위 간사(바른정당) 손잡고면담
- 2017.2.10. [법제도개선위] 국회 환노위 '손배가압류' 질의서 발송
- 2017.3.22. [법제도개선위] 대선주자 손배가압류 질의서 전달
- 2017.3.30. [법제도개선위] 문재인캠프, 유승민캠프 질의서 회신
- 2017.4.5. [법제도개선위] 심상정캠프 손배가압류 질의서 회신
- 2017.4.11. [법제도개선위] 문재인캠프 손배가압류 질의서 재회신
- 2017.5.20. [법제도개선위] 강병원 의원실 면담
- 2017.6.3. [법제도개선위] <국민마이크> 손배가압류 발언참여(배춘환)
- 2017.6.28. [법제도개선위] 국민인수위 '대정부요구안' 서한 전달
- 2017.8.25. [법제도개선위] 노동자 손배가압류 변호사 집담회
- 2017.9.19. [법제도개선위] 판례평석-하이디스 정리해고 사건에 관한 두 개의 상반된 판결
- 2017.9.19. [법제도개선위] 손잡고법제도개선위 2기 구성 기획회의 1차
- 2017.9.30. [법제도개선위] 고용노동부장관 국정감사 질의서 의원실 전달
- 2017.10.10. [법제도개선위] 강병원 환노위 의원 손잡고면담
- 2017.10.26. [법제도개선위]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손잡고면담
- 2017.12.6. [법제도개선위] 법제도개선위 구성을 위한 2차 임시회의

* 입법청원 등 법안알리기 활동

- 2017.1.11. [입법청원] <온라인서명> 노란봉투법 입법청원 온라인 배포 시작
- 2017.1.14. [입법청원] <거리서명> 노란봉투법 입법청원 거리서명
- 2017.1.21. [입법청원] <거리서명> 노란봉투법 입법청원 거리서명
- 2017.2.3. [입법청원] 노란봉투법 SNS 릴레이 인증샷 시작
- 2017.2.4. [입법청원] <거리서명> 노란봉투법 입법청원 거리서명
- 2017.2.10. [입법활동] 카드뉴스 '헌법 위의 악마의 제도 손배가압류' 표적이 된 노동자
- 2017.2.11. [입법청원] <거리서명> 노란봉투법 입법청원 거리서명
- 2017.2.18. [입법청원] <거리서명> 노란봉투법 입법청원 거리서명
- 2017.2.25. [입법청원] <거리서명> 노란봉투법 입법청원 거리서명
- 2017.3.1. [입법청원] <거리서명> 노란봉투법 입법청원 거리서명
- 2017.3.4. [입법청원] <거리서명> 노란봉투법 입법청원 거리서명
- 2017.3.11. [입법청원] <거리서명> 노란봉투법 입법청원 거리서명
- 2017.3.18. [입법청원] <거리서명> 노란봉투법 입법청원 거리서명
- 2017.3.25. [입법청원] <거리서명> 노란봉투법 입법청원 거리서명

- 2017.4.3. [입법청원] <거리서명> 노란봉투법 입법청원 거리서명
- 2017.4.15. [입법청원] <거리서명> 노란봉투법 입법청원 거리서명
- 2017.4.22. [입법청원] <거리서명> 노란봉투법 입법청원 거리서명
- 2017.4.29. [입법청원] <거리서명> 노란봉투법 입법청원 거리서명
- 2017.5.1. [입법청원] <거리서명> 노란봉투법 입법청원 거리서명

* 기자회견 토론회 등

- 2017.1.17. [기자회견] “노동자 죽이는 적폐 중이 적폐 ‘손배가압류’, 국회가 해결하라”
- 2017.2.7. [기자회견] 하루하루 숨통을 옥죄는 손배가압류 국회가 해결해주시시오
- 2017.2.8. [토론회] 국회토론회 노동자 손배소 피해실태와 법개정의 시급성 “벼랑 끝에 선 손배소 노동자, 법개정으로 살리자!”

[국가손배대응모임] 국민에 대한 국가의 손배청구, 이제 그만!

손배가압류는 사측이 제기하는 손배가압류 외에도 ‘대한민국’이 원고인 손해배상도 있습니다. 노동자를 포함해, 국가가 정치적 비판을 제기하는 국민을 상대로 비판을 막기 위해 파업, 집회 등에 공권력을 투입하고, 그 비용까지 민사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손잡고 노동현장 가운데 국가의 손배청구에 가장 대표적인 사업장이 두 군데 있습니다. 바로 쌍용자동차지부와 유성기업지회입니다.

2017년 5월 11일, 국가손배 피해당사자인 쌍용자동차지부가 노동 뿐 아니라 집회 시위와 같이 헌법상 기본권을 행사하다가 국가기관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한 단체 및 개인들에게 ‘함께 대응하자’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손잡고는 운영위를 거쳐 간사단체로 참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손잡고를 비롯해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강정마을회, 강정법률지원모금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중총궐기투쟁본부, 백남기 투쟁본부, 비정규직 없는 세상만들기, 생명평화결사, 유성기업 범시민 대책위원회,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충남건설기계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 유성기업 영동지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유성기업 아산지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충남지역본부,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해

군기지 전국대책회의, 참여연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한국진보연대, 희망버스 사법탄압에 맞서는 돌려차기 등 총 29개 단체가 함께하기로 결의했습니다.



2017년 5월 15일 첫 모임을 가진 이래 국가손배대응모임은 2017년 동안 15차례 회의를 갖고, 토론회, 대정부 요구, 국회 질의, 기자회견, 국가기관 담당자 면담 등 다양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2017년 11월 28일 국회토론회 “국가/기업의 괴롭히기 소송, 어떻게 할 것인가”를 통해 국가손배 실무담당인 법무부와 함께 문제해결을 위한 토론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2017년 12월 15일, 국가손배 피해대상 중 강정마을 주민과 활동가들에 대한 34억원 구상권청구소송이 ‘법원조정절차’를 정부가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종료되었습니다.

강정마을 구상권청구는 청구주체가 해군입니다. 남은 7건의 국가손배 소송의 청구주체는 ‘경찰’입니다. 2008년 광주병충불집회에 대한 손배 1건, 2009년 쌍용자동차지부 정리해고 파업에 대한 손배 1건, 2011년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참여자에 대한 손배 1건, 2011년 유성기업지회의 파업에 대한 손배 1건, 2015년 세월호집회에 대한 손배 2건, 2015년 민중총궐기에 대한 손배 1건 등 모두 이명박, 박근혜 정권동안 집회-시위, 쟁의 등을 두고 제기된 국가손배 사건입니다. 국가손배대응모임은 향후 경찰이 제기한 손배를 철회하기 위한 활동을 펼치는 한편,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괴롭히기 소송’을 막기 위한 입법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2017년 국가손배대응모임 활동] : 2017.5.11. 손잡고 간사단체 공식 참여

- * 국가손배대응모임 : 1차~15차 회의진행
- 2017.5.15. [국가손배대응모임] 제1차 국가손배대응모임 회의
- 2017.5.22. [국가손배대응모임] 제2차 국가손배대응모임 회의
- 2017.5.31. [국가손배대응모임] 제3차 국가손배대응모임 회의
- 2017.6.8. [국가손배대응모임] 제4차 국가손배대응모임 회의

- 2017.6.21. [국가손배대응모임] 제5차 국가손배대응모임 회의
- 2017.6.27. [국가손배대응모임] 제6차 국가손배대응모임 회의
- 2017.7.11. [국가손배대응모임] 제7차 국가손배대응모임 회의
- 2017.7.25. [국가손배대응모임] 제8차 국가손배대응모임 회의
- 2017.8.16. [국가손배대응모임] 제9차 국가손배대응모임 회의
- 2017.9.6. [국가손배대응모임] 제10차 국가손배대응모임 회의
- 2017.9.27. [국가손배대응모임] 제11차 국가손배대응모임 회의
- 2017.10.19. [국가손배대응모임] 제12차 국가손배대응모임 회의
- 2017.11.13. [국가손배대응모임] 제13차 국가손배대응모임 회의
- 2017.11.28. [국가손배대응모임] 제14차 국가손배대응모임 회의
- 2017.12.27. [국가손배대응모임] 제15차 국가손배대응모임 회의

* 입법활동 : 서면질의, 면담 등

- 2017.6.8. [국가손배대응모임] 국민인수위에 “새정부에 바란다” 서한 전달
- 2017.7.5. [국가손배대응모임] 법개정논의를 위한 금태섭 법사위의원 면담
- 2017.8.9. [입법활동] 국민인수위 강정마을 국가손배 건 관련 답변 공문 수신
- 2017.9.30. [국가손배대응모임] 법무부장관, 경찰청, 국가손배 국정감사 질의서 각 행안위, 법사위 소속 의원실 전달
- 2017.10.16. [국가손배대응모임] 국민인수위 국가손배질의 ‘경찰청’ 답변공문 수신
- 2017.12.5. [국가손배대응모임] 법무실장 면담

* 기자회견 토론회 등

- 2017.6.8. [기자회견] 국민에 대한 국가 손배가압류 철회 촉구 기자회견 “국민에 대한 국가의 손배가압류는 부당합니다”
- 2017.9.22. [국가손배대응모임] <국회정책토론회> 전략적 봉쇄소송 현황과 과제 정책토론회 토론 참여
- 2017.11.28. [토론회] 국가/기업의 괴롭히기소송 남발, 어떻게 할 것인가
- 2017.12.15. [국가손배대응모임] <논평> 강정마을 주민과 평화활동가에 대한 정부의 구상권 청구 취소를 환영한다 - 집회 시위 쟁의행위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가압류 모두 철회되어야

■ 피해 지원 활동

* 앞서 모금활동에서 설명드린, <장기해고자 지원사업>과 <손배노동현장 법률기금 지원> 외에도 손잡고는 사안에 따라 긴급하게 지원한 ‘피해자직접지원’과 연계를 통해 지원한 ‘지원연계사업’ 등을 통해 노동현장을 지원했습니다.

[지원연계] 2017년에도 성심수녀원과 손잡고, 자녀학자금, 영유아 보육비 지원

2015년 손잡고와 연계한 이후 손배가 압류 피해노동자 가구에 학비지원과 영유아 보육비 지원을 함께한 성심수녀회 소피마들렌센터에서 2017년에도 학비지원과 영유아 보육비 지원 연계를 요청해왔습니다. 손잡고는 내부 논의를 거쳐 손배피해 가구 가운데 노란봉투캠페인 지원을 받지 못했던 노동현장과 현재 압류가 진행 중인 당사자 가운데 노동조합의 추천을 받아 지원을 연계했습니다. 소중한 인연 맺어주신 성심수녀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성심수녀회는 손잡고 외에도 비정규노동자, 해고노동자, 장기투쟁노동자 등 노동현안에 관심을 놓지 않고 연대를 합니다. 성심수녀회의 활동에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성심수녀회 마들렌 소피센터 교육비(보육비) 신청서

1. 성명				
2. 생년월일		성별		
3. 본적				
4. 주소 (보호자)		연락처		
5. 가족사항				
관계	성명	연령	직업	기타사항
자녀 통장	계좌번호	은행	계좌주	

본인은 귀 재단의 교육비 지원자가 되고자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보호자 연서로 이에 신청 합니다.

2016 년 월 일

신청자 : _____

보호자 : _____

재단법인 성심수녀회 소피센터 귀중

[치료비지원] 고공농성자 가족 병원비 지원

2016년 ‘손배가압류 철회’를 요구하며 부산시청앞 광고탑에서 고공농성을 한 생탁막걸리 해고노동자 가족이 긴급 수술을 받게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손잡고는 운영위원회의를 거쳐 수술비 일부를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집행했습니다.

■ 연대 활동

[손배노동현장 연대] 손의 온기가 현장에 닿도록!

손잡고가 노동현장간담회를 통해 매월 현장과 소통의 시간을 갖지만, 사실 현장간담회에 함께하기 어려운 노동현장도 있습니다. 손배가압류 노동현장이 대부분 지역에 위치해 있고, 일부는 조합원 수가 적은 소규모 노동조합이라 간담회 출석을 위한 회의비용을 지출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손잡고는 요청에 따라 회의비를 손잡고가 부담하는 한편, 틈틈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노동현장 소식을 기록하고 간담회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노동현장별 창립기념일, 후원주점, 송년행사 등 기쁜 일이나 장례, 열사대책위, 추모문화제 등 슬픈 일에도 여건이 닿는 한 함께 하기 위해 부지런히 연대했습니다.

손잡고는 손배가압류와 관련한 성명이나 기자회견 외에도 손배 피해 노동현장의 요청에 따라 현장 상황에 대한 기고나, 성명, 탄원, 위원회 참여 등 연대활동을 합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아직 손잡고가 1인 활동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노동현장과 연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18년에는 손배피해노동현장 가운데 방문하지 못한 곳을 우선 방문해 피해 노동현장 소식을 고루 전하고, 손잡고 회원들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2017년 손잡고 노동현장 연대]

[방문연대] : 38건

- 2017.1.5. <유성범대위> '한광호 열사 투쟁 300일 기자회견'
- 2017.1.7. <하이디스지회> 손배소 탄원 2차 거리서명
- 2017.2.9. <유성범대위> 기자회견 "냉동고에서 보낸 1년 한광호열사 330일 이제는 보내 드리고 싶습니다"
- 2017.2.17. <손배문화제> 광화문 블랙텐트 손배가압류 촛불문화제
- 2017.2.27.~3.4 <유성범대위> 한광호열사 장례위원 단체연명 및 추모주간, 장례식 참여
- 2017.3.21. <유성범대위> 기자회견 "대법원의 빠른 판결이 노동자를 살립니다"
- 2017.4.7. <상신브레이크지회> <재판참관> 부당해고/임금체불소송 대법원선고
- 2017.4.21. <하이디스지회> '명예훼손 손배소' 손잡고 탄원서 제출
- 2017.4.27. <하이디스지회> <재판참관> 명예훼손손배소 결심재판
- 2017.4.28. <투쟁사업장공동투쟁단> <한끼단식> 고공단식농성 연대

- 2017.5.10. <투쟁사업장공동투쟁단> 단식고공농성 해제 기자회견
- 2017.5.11. <하이디스지회> <열사추모제> 배재형 열사 2주기참석
- 2017.5.16. <갑을오토텍지회> <기자회견> 갑을사태 조속 해결 촉구! 노동-시민사회 기자회견 단체 연명 및 참여
- 2017.5.18. <하이디스지회> <재판참관> 명예훼손손배소 1심 선고
- 2017.5.18. <유성지회> <문화제> 518투쟁문화제 “승리의 다짐, 연대의 약속” 참여
- 2017.5.25. <KTX승무지부> <대책위 제안> KTX승무원해고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위
- 2017.7.19. <동양시멘트지부> 노동주점 연대
- 2017.8.25. <MBC본부> MBC-KBS 파업 촛불문화제
- 2017.9.1. <쌍용차지부> 다큐 ‘안녕, 히어로’ VIP시사회 참석
- 2017.9.8. <MBC본부> KBS-MBC 돌마고파티 참석
- 2017.9.15. <MBC본부> KBS-MBC 돌마고파티 참석
- 2017.9.25.- <KEC지회> 임금압류일지 기획기고 시작
- 2017.9.28. <KTX승무지부> KTX해고승무원 복직을 위한 바자회 연대
- 2017.9.28. <동양시멘트지부>(삼표지부) 투쟁승리 보고대회
- 2017.10.25. <MBC본부> MBC 파업콘서트 ‘다시 만나도 좋은 친구’ 참여
- 2017.11.6. <MBC본부> <공영방송정상화시민행동> 광화문 앞 1인시위
- 2017.11.21. <파인텍지회> 고공농성 현장 연대방문
- 2017.11.24. <쌍용차지부> 인도원정투쟁 발대식 및 쌍차지부 결의대회 연대
- 2017.11.29. <손배문화제> 민주노총 투쟁사업장 손배가압류 문화제
- 2017.12.1. <쌍용차지부> 인도원정투쟁선포 기자회견
- 2017.12.7. <동양시멘트지부> NCKK인권상 시상식 참여 “동양시멘트지부 수상”
- 2017.12.20. <하이디스지회> 정리해고 1000일 투쟁승리 결의 문화제
- 2017.12.22. <유성지회> <재판참관> 유시영회장 부당노동행위 대법원 선고재판
- 2017.12.27. <하이디스지회> 탄원서 “하이디스지회 명예훼손 손배소 2심 기각탄원”
- 2017.12.28. <쌍용차지부> 쌍용차해고노동자 복직을 위한 촛불문화제 연대
- 2017.12.30. <파인텍지회> 굴뚝농성 연대의 날 “408+49” 연대

[논평 및 기자회견] 논평 9건, 기자회견 10건

- 2017.1.10. [기자회견] 국가 및 기업손해배상철폐 투쟁선포 기자회견
- 2017.1.17. [기자회견] 20대국회 노란봉투법 입법촉구 기자회견
- 2017.1.24. [기자회견] 하이디스지회 손해배상판결 규탄 기자회견
- 2017.1.25. [논평]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 90억 손배소 2심 결과에 대한 논평
- 2017.2.7. [기자회견] 하루하루 숨통을 옥죄는 손배가압류 국회가 해결해주십시오
- 2017.6.1. [기자회견] 하이디스지회 손해배상 판결 불복 및 항소기자회견
- 2017.6.8. [기자회견] 국민에 대한 국가 손배가압류 철폐 촉구 기자회견

- 2017.6.28. [기자회견] 2017년 상반기 노동자 손배가압류 현황발표
- 2017.6.29. [논평] 고용노동부 부당노동행위 근절 방안에 대한 손잡고 논평
- 2017.9.11. [기자회견] 비정규직연대자에 대한 20억 손해배상판결 대법원 상고 기자회견
- 2017.10.10. [논평] 유엔사회권위원회의 한국정부 사회권에 대한 최종권고문에 관한 논평
- 2017.10.24. [기자회견] KEC 손해배상 청구소송 기자회견
- 2017.11.17. [논평] 유성기업의 노동자 손배소 제기에 대한 규탄 논평
- 2017.12.1. [논평] 하이디스지회 '모욕건 손배소 2심 선고에 대한 논평
- 2017.12.5. [논평] 갑을오토텍지회에 제기된 손배소 1심 판결에 대한 논평
- 2017.12.12. [논평] 정부의 강정마을 구상권 법원 조정 수용 결정에 대한 논평
- 2017.12.22. [논평] 유성기업 부당노동행위 대법원 판결에 대한 논평
- 2017.12.27. [기자회견] 하이디스 정리해고 1000일 연대의 날 기자회견

[시민사회 연대] 연대의 손, 꼭 맞잡기!

2017년의 손잡고는 손배소 노동현장이 아니더라도, 손잡고에 연대 요청의 손길이 내밀어지면, 꼭 맞잡고자 노력했습니다. 2016년에서 2017년으로 이어진 촛불에서 본 '연대의 힘'과 '변화에 대한 열망'을 목격했기에, '적폐청산'이라는 방향을 향해 함께 손잡고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손잡고 역시 시민사회에 번번이 연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2017년 손잡고 시민사회 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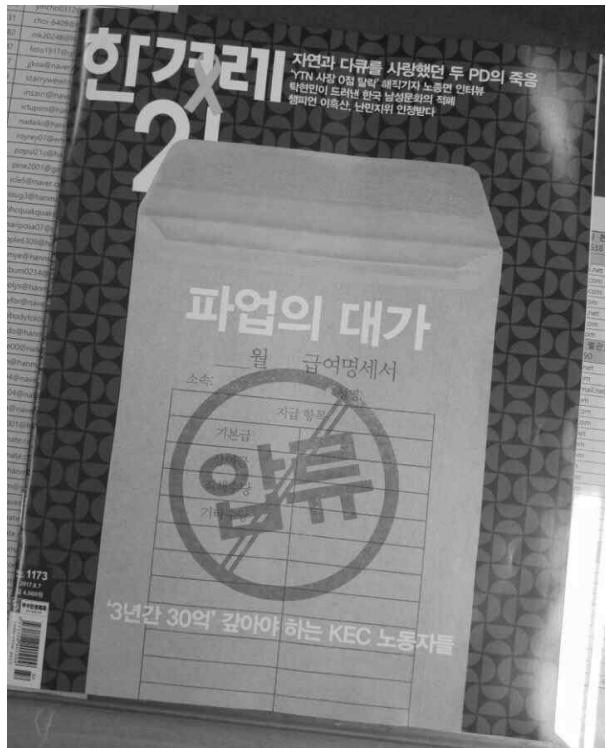
- 2017.1.20. [연대활동] 삼성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규탄 및 특검 영장재청구 촉구 기자회견
- 2017.2.10.-11. [연대활동] 비정규직, 정리해고, 노조탄압없는 세상만드는 1박2일 대행진
- 2017.2.24.-25.[연대활동] 비정규직, 정리해고, 노조탄압없는 세상만드는 1박2일대행진 2차
- 2017.3.20. [연대활동] 촛불 우선개혁입법 즉각 처리 촉구 '시민사회-정치권' 공동기자회견
- 2017.4.10. [연대활동] <만원공동행동> 최저임금만원·비정규직 철폐 만원공동행동 연명
- 2017.4.22. [연대활동] 우리일터 새로고침 대행진 참가단체 연명
- 2017.6.21. [연대활동] 강정마을 후원주점 연대
- 2017.7.15. [연대활동] <퀴어문화제> 손잡고 부스 참가
- 2017.7.20. [연대활동]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후원주점
- 2017.9.26. [연대활동] <공동성명>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관련 시민사회-종교계 입장 "파리바게뜨는 고용노동부의 직접고용 지시 이행하라" 단체 연명 참여
- 2017.9.28. [연대활동] 연분홍치마 후원주점
- 2017.10.16. [연대활동] <노조좋아운동본부> 연대단체 연명 및 참여

- 2017.11.3. [연대활동]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후원주점 연대
- 2017.11.13. [연대활동] “전태일에게 노동조합을! 1,113인 사회적 선언” 연명
- 2017.12.18. [연대활동] 용산참사대책위 ‘공동정범’ 시사회

■ 기고활동

2017년 손잡고는 법안을 발의한 2월과 기업손배와 국가손배를 나눠 국민인수위에 대정부요구안을 전달한 6월 전후로 손배가압류 문제를 집중 알리는 언론기획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노동현장의 피해증언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구성원들이 각각 손배가압류 피해당사자를 만나 인터뷰 해 기고글을 쓰고, 라디오, 팟캐스트 등에 출연해 인터뷰를 하는 등 기고활동도 펼쳤습니다. 각 기사는 손잡고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2017년 손잡고 언론활동]

* 기고 : 22건

- 2017.1.3. <오마이뉴스> 국내 2위 막걸리 생략, 그 뒤에 ‘잇힌 싸움’
- 2017.1.19. <오마이뉴스> ‘가짜사장’전성시대, ‘불법’의 온상이 된 대기업들
- 2017.1.26. <매일노동뉴스>손배가압류 철폐 없이 일터 평화는 없다
- 2017.2.6. <오마이뉴스> 여성기숙사로 몰려온 용역강패, 그 후 벌어진 일
- 2017.2.11. <오마이뉴스> 경영진 사진에 신발 던졌더니 1억
- 2017.2.14. <토마토뉴스> 파업 한 번에 수십억을 배상하는 나라
- 2017.2.24. <경향신문 인터뷰> “손배가압류 고통 노동자에 동아줄 되어줄 것”
- 2017.2.25. <프레시안> 조끼 입고 로비에 있었다고 21억 소송?

- 2017.3.1. <프레스리안> 법이 나에게 죽으라고 하는 것 같았다
- 2017.4.23. <오마이뉴스 인터뷰> 어느 날 갑자기 수백억 빚쟁이가 됐습니다
- 2017.5.17. <오마이뉴스> 한 번의 기자회견, 4억 원의 손배가압류로 돌아왔다
- 2017.5.19. <오마이뉴스> '노조파괴는 누군가의 삶을 파괴하는 것'
- 2017.6.1. <오마이뉴스> "하이디스손배 1심판결, 사측 시각으로 사건 해석"
- 2017.6.1. <변혁정치> 인터뷰 "노동3권 침해하는 손배가압류는 '악마의제도'
- 2017.6.17. <오마이뉴스> 2년만에 받은 '해고무효' 판결 "이제 문재인 정부 나서야"
- 2017.6.30. <한겨레> 노조 손배가압류, 언제까지?
- 2017.7.12. <오마이뉴스> '부당해고' 판결받은 그들은 왜 웃지 못할까
- 2017.7.14. <한겨레-국가손배대응모임 김혜진> 선언 말고 진짜 '인권경찰'
- 2017.7.17. <오마이뉴스> 쌍용차 정리하고 노동자들의 아픔, 이제는 '손잡고' 가자
- 2017.8.10. <인터뷰> 팟캐스트 '그것이 알기싫다' 내 삶을 앗아가는 손배가압류
- 2017.8.24. <오마이뉴스> 파업 후 드러난 노조파괴 시나리오, 손실책임은 누가?
- 2017.8.25. <오마이뉴스> 예비 변호사의 지적 "법원은 사실 기울어진 운동장"

* 언론기획 : 7건

- 2017.2.28. <CBS, 경향, 한겨레> 손잡고 3년 손배가압류 관련 언론기획
- 2017.3.3. <CBS변상욱의 기자수첩> "노란봉투 노동자 손해배상사건"
- 2017.5.25. <CBS 정관용 시사자키> 집중인터뷰 "노동조합의 손배가압류, 해결방법 없나?"
- 2017.6.30. <CBS 정관용 시사자키> "살인진압 하더니.. 벼랑 끝 노동자에 1867억 청구"
- 2017.7.3.-5 <프레스리안 국가손배 연속기획> ①나라는 어떻게 시민을 괴롭히는가 ②끝나지 않은 쌍용차 "새총으로 헬리콥터를 파괴했다고?" ③"10억짜리 소장 받으면 어떨 거 같은가"
- 2017.7.9. <한겨레토요판 국가손배기획> 법을 이용한 국가폭력 손배소, 계속하시렵니까
- 2017.8.1. <한겨레21> 제1173호 표지이야기 '파업의 대가'

■ 회원활동

[제2회 총회] 새 등지에서 회원활동 시작



“노란봉투법 꼭 입법합시다!” 손잡고는 2017년 4월 26일 회원 여러분을 모시고 지난 1년을 돌아보고 2017년 한 해 계획을 보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20대 국회에 ‘노란봉투법 발의’를 내용을 보고하며, 손배가압류로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법개정으로 꼭 막아보자고 결의도 다졌습니다.

2회 총회는 손잡고가 ‘인권재단사람’에 등지를 틀고 새 등지에서 개최한 첫 공식행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큼니다. 회원 여러분을 모시고 앞으로 손잡고가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갈 새 등지를 소개하는 한편, 손배가압류 문제 역시 ‘인권’과 밀접한 영역임을 다시금 강조하는 자리였습니다.

한편, 2회 총회를 통해 박병학 회계감사 선임을 알리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회원 상영회] “안녕, 히어로” 상영회

2017년 9월 11일에는 회원과 함께하는 영화 상영회를 열었습니다. 100석 규모의 인디스페이스를 대관해 손잡고*참여연대*천주교인권위 등 3개 단체의 회원을 모시고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아들의 성장기를 다룬 다큐 “안녕, 히어로” (감독 한영희)를 관람했습니다.

영화 상영 후에는 김덕진 천주교인권위 사무국장의 사회로 “손배가압류”를 주제로 관객과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노동, 노동자, 노동운동, 노동조합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지’, ‘왜 우리는 손배·가압류라는 괴물 같은 제도로 고통 받는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을 지원하고, 그 악마의 제도를 바꾸어야 한다고 활동하고 있는지’를 주제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영화에 조연 격인 김득중 쌍용자동차 지부장을 비롯해, 쌍용자동차와 비슷하게 외투자본의 먹튀와 정리해고를 경험한 하이디스지회의 이상목 지회장이 관객과의 대화를 함께 했습니다.



손잡고 X 참여연대 X 천주교인권위원회가 <안녕 히어로>를 뜨겁게 응원합니다! 특별한상영회에 초대합니다!

★★★★★
오늘날의 노동현실을 돌아보게 하는 올해의 다큐
일시: 9월 11일(월) 저녁 7시 30분
장소: 인디스페이스(서울 종로 서울극장 내)
※상영 후 ‘관객과의 대화’가 진행됩니다.
진행: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참석: 한영희 감독,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지부장, 하이디스지회 이상목 지회장

상영회 신청 안내
구글시트(goo.gl/PsegVv)를 통해 신청
(네이버 '시네마달 포스트' 검색)
▶<안녕 히어로> 특별상영회 게시글 클릭 ▶하단 신청 링크클릭
*시네마달 페이스북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 시네마달 (02-337-2135)

6. 전체 활동 평가

2017년 손잡고는 밖으로는 손잡고 본연의 목표인 법제도개선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면서도, 안으로는 안정되고 독립된 운영구조를 확보하기 위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200여명의 회원구조에서도 법제도개선활동과 피해자지원활동을 이어가기 위해 인권재단사람, 4.9통일평화재단, 해피빈재단 등과 적극적으로 업무협약을 맺어 사업비를 확보하고, 총회를 통해 승인된 사업을 완수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재정부담을 줄이는 한편, 안정적 사무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인권재단사람과 사무공간무상임대 협약을 맺고, 4월부터 인권재단사람 1층에 동지를 틀었습니다.

진상조사소위원회 역시 총회에서 약속한 ‘1기 손잡고 인큐베이팅 과정에서 해소되지 않은 재정 및 운영상의 문제’를 끝맺음하기 위한 활동도 계속해나갔습니다. 평화박물관으로부터 회비를 돌려받기 위해 시민사회에 적극 도움을 요청하는 한편, 법률적 대응도 신중히 진행했습니다.

다만 올해도 사무국 구성을 확대하겠다는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근속수당을 지급하고, 건강검진 등 의료비를 지원하는 등 활동가의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1인 활동가 체제를 보완하기 위해 각 운영위원이 책임과 역할을 분담해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7년 주요 활동목표에 따라 계획한 분야별 활동은 사업별 기획 취지와 기대효과를 대체로 충족했다고 평가합니다. 다만 몇 가지 활동은 수행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변수로 부득이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2017년 뉴스펀딩을 기획해 차기년도 사업비 재원을 마련하고자 했으나, 법률기금모금 등 긴급모금이 두 차례 있었고, 손배소 노동현장별 각기 모금이 진행되는 등 시기가 겹치기도 해 계획을 내년도로 미뤘습니다. 또 국회 입법절차에 맞춰 뉴스펀딩을 시작해 여론활동과 모금활동 모두 효과를 보고자 계획했으나, 2017년 노동소위가 제대로 열리지 않는 등 국회 일정에 영향을 받기도 했습니다.

7. 2017년 활동일지

- 2017.1.3. [시무식] 투쟁농성장 사과나눔
- 2017.1.3. [기고] <오마이뉴스>국내 2위 막걸리 생탁, 그 뒤에 ‘잇힌 싸움’
- 2017.1.5. [연대활동] <유성범대위> ‘한광호 열사 투쟁 300일 기자회견’ 노조파괴 · 뇌물 · 폭력! 정몽구를 구속하라!
- 2017.1.5. [손배피해기록] 현대자동차비정규직 손배당사자 농성장 방문인터뷰
- 2017.1.6. [피해자지원] 손배소피해자긴급의료비지원
- 2017.1.6. [법제도개선위] 20대국회 노란봉투법 손잡고안 마련
- 2017.1.6. [손잡고 편지] “함께 가야 따뜻하다” 2016년, 손잡고와 함께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2017.1.7. [연대활동] 하이디스지회 손배소 탄원 2차 거리서명
- 2017.1.10. [기자회견] ‘노동블랙리스트, 검은거래를 부셔라’ 국가 및 기업손해배상철회 투쟁선포기자회견 “쌍용자동차 해고자들이 다시 농성에 돌입합니다”
- 2017.1.11. [법제도개선위] 노란봉투법TF 구성 및 긴급회의
- 2017.1.11. [입법청원] <온라인서명> 노동3권보장! 손배가압류그만! 노란봉투법 입법청원 온라인 배포 시작
- 2017.1.14. [입법청원] <거리서명> 노동3권보장! 손배가압류그만! 노란봉투법 입법청원 거리서명
- 2017.1.17. [기자회견] 20대국회 노란봉투법 입법촉구 기자회견 “노동자 죽이는 적폐 중이 적폐 ‘손배가압류’, 국회가 해결하라”
- 2017.1.17. [노동현장간담회] 제17차 손잡고노동현장간담회 진행
- 2017.1.18. [입법활동] ‘노란봉투법’ 20대국회 발의(대표발의 더민주 강병원)
- 2017.1.18. [운영위회의] 제10차 손잡고운영위회의
- 2017.1.19. [기고] <오마이뉴스> ‘가짜사장’전성시대, ‘불법’의 온상이 된 대기업들
- 2017.1.20. [연대활동] 삼성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규탄 및 특검 영장 재청구 촉구 기자회견
- 2017.1.21. [입법청원] <거리서명> 노동3권 보장! 손배가압류 그만! 노란봉투법 입법청원 거리서명
- 2017.1.24. [기자회견] 하이디스지회 손해배상판결 규탄 기자회견 “하이디스 노동자 두 번 죽이는 법원의 손해배상 판결 규탄한다”
- 2017.1.24. [법제도개선위] 홍영표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손잡고면담

- 2017.1.25. [논평]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 90억 손배소 2심 결과에 대한 논평 “현대차는 ‘권리포기’ 강요하는 손배소 즉각 철회하라!”
- 2017.1.26. [운영위 기고] <매일노동뉴스>손배가압류 철폐 없이 일터 평화는 없다
- 2017.1.26. [손잡고편지-배춘환 대표] 2017년 새해는 함께 희망을 꿈꾸고 이뤄요
- 2017.2.3. [입법청원] 노란봉투법 SNS 릴레이 인증샷 시작
- 2017.2.3. [법제도개선위] 임이자 환노위 간사(새누리당), 한국노총, 손잡고면담
- 2017.2.4. [입법청원] <거리서명> 노동3권 보장! 손배가압류 그만! 노란봉투법 입법청원 거리서명
- 2017.2.6. [기고] <오마이뉴스> 여성기숙사로 몰려온 용역깡패, 그 후 벌어진 일
- 2017.2.7. [기자회견] 하루하루 숨통을 옥죄는 손배가압류 국회가 해결해주십시오
- 2017.2.7. [노동현장간담회] 흥영표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간담회
- 2017.2.8. [토론회] 국회토론회 노동자 손배소 피해실태와 법 개정의 시급성 “벼랑 끝에 선 손배소 노동자, 법개정으로 살리자!”
- 2017.2.9. [연대활동] <유성범대위> 기자회견 “냉동고에서 보낸 1년 한광호 열사 330일 이제는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 2017.2.10. [법제도개선위] 하태경 환노위 간사(바른정당) 손잡고면담
- 2017.2.10. [입법활동] 카드뉴스 제작배포 : ‘헌법 위의 악마의 제도 손배가압류’ 표적이 된 노동자
- 2017.2.10. [법제도개선위] 국회 환노위 ‘손배가압류’ 질의서 발송
- 2017.2.10.-11. [연대활동] “비정규직, 정리해고, 노조탄압없는 세상 만드는 1박2일 대행진” 연명 및 참여
- 2017.2.11. [기고] <오마이뉴스> 경영진 사진에 신발 던졌더니 1억
- 2017.2.11. [입법청원] <거리서명> 노동3권 보장! 손배가압류 그만! 노란봉투법 입법청원 거리서명
- 2017.2.13. [진상조사위] 회비지급명령신청서 접수
- 2017.2.14.-17. [연대활동] 광장블랙텐트 연극 <노란봉투> 공연
- 2017.2.14. [기고] <토마토뉴스> 파업 한 번에 수십억을 배상하는 나라
- 2017.2.14. [노동현장간담회] 제18차 손잡고노동현장간담회
- 2017.2.15. [운영위원회] 제11차 손잡고운영위원회 회의
- 2017.2.17. [연대활동] 광화문 블랙텐트 손배가압류 촛불문화제
- 2017.2.18. [입법청원] <거리서명> 노동3권 보장! 손배가압류 그만! 노란봉투법 입법청원 거리서명

- 2017.2.22. [진상조사위] 평화박물관 상대 회비반환 법원 지급명령결정, 결정문 발송
- 2017.2.24. [기고] <경향신문 인터뷰> “손배가압류 고통 노동자에 동아줄 되어줄 것”
- 2017.2.24.-25. [연대활동] “비정규직, 정리해고, 노조탄압없는 세상 만드는 1박2일 대행진 2차” 연명 및 참여
- 2017.2.25. [기고] <프레스시안> 조끼 입고 로비에 있었다고 21억 소송?
- 2017.2.25. [입법청원] <거리서명> 노동3권 보장! 손배가압류 그만! 노란봉투법 입법 청원 거리서명
- 2017.2.27.~3.4 [연대활동] <유성범대위> 353일만에 열사를 떠나보냅니다 “한광호 열사 장례위원회 단체연명 및 추모주간, 장례식 참여
- 2017.2.28. [언론기획] 손잡고 3년 손배가압류 관련 언론기획(CBS, 경향, 한겨레)
- 2017.2.28. [손잡고편지] 세 살된 손잡고와 함께 ‘함께살자, 노란봉투법’ 목소리를 높여주세요!
- 2017.3.1. [기고] <프레스시안> 법이 나에게 죽으라고 하는 것 같았다
- 2017.3.1. [입법청원] <거리서명> 노동3권 보장! 손배가압류 그만! 노란봉투법 입법 청원 거리서명
- 2017.3.2. [기타활동] 금속노조-손잡고 ‘손배가압류ILO제소’ 관련 실무자회의
- 2017.3.3. [운영위원회] 손잡고-한국노총 대표자 간담회
- 2017.3.3. [언론기획] <CBS변상욱의 기자수첩> “노란봉투 노동자 손해배상사건”
- 2017.3.4. [노동현장간담회] 이재명 대선주자-손배소 피해자 간담회
- 2017.3.4. [입법청원] <거리서명> 노동3권 보장! 손배가압류 그만! 노란봉투법 입법 청원 거리서명
- 2017.3.11. [입법청원] <거리서명> 노동3권 보장! 손배가압류 그만! 노란봉투법 입법 청원 거리서명
- 2017.3.14. [진상조사위] 평화박물관 회비반환 지급명령결정문 정보 송달 확인
- 2017.3.14. [노동현장간담회] 제19차 손잡고 노동현장간담회 회의
- 2017.3.15. [운영위원회의] 제12차 손잡고운영위원회의
- 2017.3.16. [진상조사위] 평화박물관 측 지급명령결정에 이의신청제기
- 2017.3.18. [입법청원] <거리서명> 노동3권 보장! 손배가압류 그만! 노란봉투법 입법 청원 거리서명
- 2017.3.20. [연대활동] 촛불 우선개혁입법 즉각 처리 촉구 ‘시민사회-정치권’ 공동기자회견, 연명 및 참여
- 2017.3.21. [연대활동] <유성범대위> 기자회견 “대법원의 빠른 판결이 노동자를 살림

- 니다” ‘체불임금 37억, 생명줄인 돈으로 노동자 괴롭히는 유성기업’
- 2017.3.22. [입법활동] 대선주자 손배가압류 질의서 전달
- 2017.3.22. [손배피해기록] 갑을오토텍지회 손배가압류 피해자면담
- 2017.3.24. [기타활동] 손잡고 사무실 이전
- 2017.3.25. [입법청원] <거리서명> 노동3권 보장! 손배가압류 그만! 노란봉투법 입법 청원 거리서명
- 2017.3.28. [기타활동] 인권재단사람-손잡고 무상임대계약체결
- 2017.3.30. [기타활동] 손잡고 이전관련 서울시, 세무서 행정신고 완료
- 2017.3.30. [입법활동] 문재인캠프, 유승민캠프 질의서 회신
- 2017.4.3. [입법청원] <거리서명> 노동3권 보장! 손배가압류 그만! 노란봉투법 입법 청원 거리서명
- 2017.4.5. [입법활동] 심상정캠프 손배가압류 질의서 회신
- 2017.4.7. [연대활동] <재판참관> 상신브레이크지회 부당해고/임금체불소송 대법원 선고 일부승소
- 2017.4.9. [모금활동] 4.9.통일평화재단 일곱 번째 동행 공모사업 협약식
- 2017.4.10. [연대활동] <만원공동행동> 최저임금만원·비정규직 철폐 만원공동행동 출범 참가단체 연명
- 2017.4.11. [입법활동] 문재인캠프 손배가압류 질의서 재회신
- 2017.4.11. [노동현장간담회] 제20차 손잡고 노동현장간담회
- 2017.4.15. [입법청원] <거리서명> 노동3권 보장! 손배가압류 그만! 노란봉투법 입법 청원 거리서명
- 2017.4.18. [모의법정] 제3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준비회의
- 2017.4.19. [운영위원회] 제13차 손잡고 운영위원회의
- 2017.4.20. [연대활동] 갑을오토텍지회 김종중 열사 조문
- 2017.4.21. [연대활동] 하이디스지회 ‘명예훼손 손배소’ 손잡고 탄원서 제출
- 2017.4.22. [연대활동] 우리일터 새로고침 대행진 참가단체 연명
- 2017.4.22. [입법청원] <거리서명> 노동3권 보장! 손배가압류 그만! 노란봉투법 입법 청원 거리서명
- 2017.4.23. [기고] <오마이뉴스 인터뷰> 어느 날 갑자기 수백억 빚쟁이가 됐습니다
- 2017.4.25.-5.14. [노란봉투 재공연] 연극 <노란봉투> 재공연
- 2017.4.26. [회원활동] 제2회 손잡고 회원총회
- 2017.4.27. [연대활동] <재판참관> 하이디스지회 명예훼손손배소 결심재판

- 2017.4.28. [연대활동] <한끼단식> 투쟁사업장공동투쟁단 고공단식농성 연대
- 2017.4.29. [입법청원] <거리서명> 노동3권 보장! 손배가압류 그만! 노란봉투법 입법 청원 거리서명
- 2017.4.30. [노란봉투 재공연] <노란봉투> 관객과의대화 : 배춘환, 박래군
- 2017.5.1. [입법청원] <거리서명> 노동3권 보장! 손배가압류 그만! 노란봉투법 입법 청원 거리서명
- 2017.5.2. [손잡고연극제] 2회공연, 연극 'C가왔다' 계약체결
- 2017.5.4. [모의법정] 제3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공고문 게시
- 2017.5.7. [노란봉투 재공연] 연극 <노란봉투> 관객과의대화 : 박병우, 김득중
- 2017.5.10. [연대활동] 투쟁사업장공동투쟁단 단식고공농성 해제 기자회견
- 2017.5.10. [손잡고연극제] 제작자 박래군, 이양구 대담
- 2017.5.11. [연대활동] <열사추모제> 하이디스지회 배재형 열사 2주기참석
- 2017.5.11. [손잡고연극제] 연극 'C가왔다' 사전토크 : 은수미, 김상은, 홍종인
- 2017.5.11. [국가손배대응모임] 손잡고 간사단체 공식 참여
- 2017.5.14. [노란봉투 재공연] 연극 <노란봉투> 관객과의대화 : 이상목, 안영철, 윤지영
- 2017.5.15. [기타활동] 손잡고 후원가입서 제작
- 2017.5.15. [국가손배대응모임] 제1차 국가손배대응모임 회의
- 2017.5.16. [연대활동] <기자회견> 갑을오토텍 직장폐쇄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규탄! 사측 대리인 박형철 청와대 비서관 임명 철회! 사을사태 조속 해결 촉구! 노동-시민사회 기자회견 단체 연명 및 참여
- 2017.5.16. [국가손배대응모임] 제1차 국가손배대응모임 회의
- 2017.5.16. [노동현장간담회] 제21차 노동현장간담회 회의
- 2017.5.17. [모의법정] 제3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홍보영상 배포
- 2017.5.17. [기고] <오마이뉴스> 한 번의 기자회견, 4억 원의 손배가압류로 돌아왔다
- 2017.5.18. [연대활동] <재판참관> 하이디스지회 명예훼손손배소 1심 선고
- 2017.5.18. [연대활동] <문화제> 유성기업 518투쟁문화제 “승리의 다짐, 연대의 약속” 참여
- 2017.5.19. [진상조사위] 평화박물관 상대 회비반환소송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 2017.5.19. [손잡고연극제] 'C가왔다' 홍보영상 제작 배포
- 2017.5.19. [기고] <오마이뉴스> '노조파괴는 누군가의 삶을 파괴하는 것'
- 2017.5.20. [입법활동] 강병원 의원실 면담

- 2017.5.22. [국가손배대응모임] 제2차 국가손배대응모임 회의
- 2015.5.23. [손잡고연극제] <보도자료 배포> 손잡고 연극제 두 번째 프로젝트 <작전명: C가 왔다>
- 2017.5.23. [손잡고연극제] ‘C가왔다’ 손잡고예매 오픈
- 2017.5.23. [손배피해기록] 의료연대 대구지부 경북대병원분회 방문 및 면담
- 2017.5.24. [손잡고연극제] ‘C가왔다’ 프레스리허설
- 2017.5.25. [연대활동] <대책위 제안> KTX승무원해고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위 연명
- 2017.5.25. [언론기획] <CBS 정관용 시사자키> 집중인터뷰 “노동조합의 손배가압류, 해결방법 없나?”
- 2017.5.25.~6.11. [손잡고연극제] 연극 ‘C가왔다’ 본공연
- 2017.5.27. [손잡고연극제] ‘C가왔다’ 관객과의대화 : 배춘환, 박병우, 홍종인
- 2017.5.31. [국가손배대응모임] 제3차 국가손배대응모임 회의
- 2017.6.1. [기자회견] 하이디스지회 손해배상 판결 불복 및 항소기자회견
- 2017.6.1. [손잡고연극제] ‘C가왔다’ 하이라이트영상 제작 배포
- 2017.6.1. [기고] <오마이뉴스> “하이디스손배 1심판결, 사측 시각으로 사건 해석”
- 2017.6.1. [기고] <변혁정치> 인터뷰 “노동3권 침해하는 손배가압류는 ‘악마의제도’
- 2017.6.2. [기타활동] 성공회대 NGO학과 강의 참여학생 간담회
- 2017.6.3. [입법활동] <국민마이크> 손배가압류 발언참여(배춘환)
- 2017.6.3. [모의법정] 경연참가신청마감 및 문제공고
- 2017.6.3. [손잡고연극제] ‘C가왔다’ 관객과의대화 : 장석우, 이미옥
- 2017.6.4. [손잡고연극제] ‘C가왔다’ 관객과의대화 : 3시공연 정준효, 송영섭
- 2017.6.4. [손잡고연극제] ‘C가왔다’ 관람평 영상 제작 및 배포
- 2017.6.6. [손잡고연극제] ‘C가왔다’ 관객과의대화 : 김언경, 정영하, 조능희
- 2017.6.8. [기자회견] 국민에 대한 국가 손배가압류 철회 촉구 기자회견 “국민에 대한 국가의 손배가압류는 부당합니다”
- 2017.6.8. [국가손배대응모임] 국민인수위에 “새정부에 바란다” 서한 전달
- 2017.6.8. [국가손배대응모임] 제4차 국가손배대응모임 회의
- 2017.6.10. [손잡고연극제] ‘C가왔다’ 관객과의대화 : 이재현, 송영섭
- 2017.6.11. [손잡고연극제] ‘C가왔다’ 관객과의대화 : 김성민, 김차곤
- 2017.6.13. [노동현장간담회] 제22차 손잡고노동현장간담회
- 2017.6.15. [운영위원회의] 제14차 손잡고 운영위원회의
- 2017.6.17. [기고] <오마이뉴스> 2년만에 받은 ‘해고무효’ 판결 “이제 문재인 정부

나서야”

- 2017.6.17. [손배피해기록] KEC지회 방문 손배소 임금압류당사자 인터뷰
- 2017.6.21. [국가손배대응모임] 제5차 국가손배대응모임 회의
- 2017.6.21. [연대활동] 강정마을 후원주점 연대
- 2017.6.27. [국가손배대응모임] 제6차 국가손배대응모임 회의
- 2017.6.28. [기자회견] 2017년 상반기 노동자 손배가압류 현황발표 “헌법 위의 적폐 ‘손배가압류’, 이제 정부가 나설 차례다”
- 2017.6.28. [입법활동] 국민인수위 ‘대정부요구안’ 서한 전달
- 2017.6.29. [논평] 고용노동부 부당노동행위 근절 방안에 대한 손잡고 논평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노동3권 침해사건 전면조사와 구제 방안이 필요하다’
- 2017.6.30. [기고] <한겨레> 노조 손배가압류, 언제까지?
- 2017.6.30. [언론기획] <CBS 정관용 시사자키> “살인진압 하더니.. 벼랑 끝 노동자에 1867억 청구”
- 2017.7.3.-5 [언론기획] <프레시안 국가손배 연속기획> ①나라는 어떻게 시민을 괴롭히는가 ②끝나지 않은 쌍용차 “새총으로 헬리콥터를 파괴했다고?” ③ “10억짜리 소장 받으면 어떨 거 같은가”
- 2017.7.5. [국가손배대응모임] 법개정논의를 위한 금태섭 법사위의원 면담
- 2017.7.7. [모의법정] 제3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서면심사 1차
- 2017.7.9. [언론기획] <한겨레토요판 국가손배기획> 법을 이용한 국가폭력 손배소, 계속하시렵니까
- 2017.7.11. [국가손배대응모임] 제7차 국가손배대응모임 회의
- 2017.7.12. [기고] <오마이뉴스> ‘부당해고’ 판결받은 그들은 왜 웃지 못할까
- 2017.7.13. [모의법정] 제3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서면심사 2차
- 2017.7.14. [기고] <한겨레-국가손배대응모임 김혜진> 선언 말고 진짜 ‘인권경찰’
- 2017.7.15. [연대활동] <퀴어문화제> 손잡고 부스 참가
- 2017.7.17. [기고] <오마이뉴스-국가손배대응모임 김제완> 쌍용차 정리하고 노동자들의 아픔, 이제는 ‘손잡고’ 가자
- 2017.7.17. [모의법정] 제3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서면심사결과발표
- 2017.7.18. [노동현장간담회] 제23차 손잡고노동현장간담회 회의
- 2017.7.19. [연대활동] 동양시멘트지부 노동주점 연대
- 2017.7.20. [연대활동]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후원주점
- 2017.7.25. [국가손배대응모임] 제8차 국가손배대응모임 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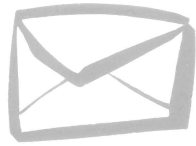
- 2017.7.26. [노동현장간담회] 쌍용차지부 노동조합 사무실 방문
- 2017.7.28. [모금활동] 해피빈재단 기부금모집단체 가입완료
- 2017.8.1. [언론기획] <한겨레21> 제1173호 표지이야기 ‘파업의 대가’
- 2017.8.8. [노동현장간담회] 손배가압류 노동교섭 대응 긴급 손배소 노동현장간담회
- 2017.8.9. [입법활동] 국민인수위 강정마을 국가손배 건 관련 답변 공문 수신
- 2017.8.10. [기고] <인터뷰> 팟캐스트 ‘그것이 알기싫다’ 박래균의 인권리포트 : 내 삶을 앗아가는 손배가압류
- 2017.8.11. [모의법정] 제3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본대회 진출자 서면제출 마감
- 2017.8.14. [모의법정] <보도자료 배포> ‘노조파괴시나리오’ 드러난 파업의 손실, 노동자에 배상책임 있을까?
- 2017.8.16. [국가손배대응모임] 제9차 국가손배대응모임 회의
- 2017.8.17. [기타활동] 2017 운영선연극상 시상식 “이양구 작가” 수상
- 2017.8.17. [진상조사위] 평화박물관 상대 회비반환소송 변론종결
- 2017.8.19. [모의법정] 제3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본대회 및 시상식
- 2017.8.22. [노동현장간담회] 제24차 노동현장간담회
- 2017.8.24. [기고] <오마이뉴스> 파업 후 드러난 노조파괴 시나리오, 손실책임은 누가?
- 2017.8.25. [기고] <오마이뉴스> 예비 변호사의 지적 “법원은 사실 기울어진 운동장”
- 2017.8.25. [법제도개선위] 노동자 손배가압류 변호사 집담회
- 2017.8.25. [연대활동] MBC-KBS 파업 촛불문화제
- 2017.8.29. [운영위회의] 제15차 손잡고 운영위원회의
- 2017.8.31.-9.6. [모금활동] 비정규직파업 연대자 손배소상고비용마련 긴급모금
- 2017.9.1. [손잡고편지] 회원 및 제안자 여러분, 긴급 도움 요청드립니다
- 2017.9.1. [연대활동] <쌍용차지부> 다큐 ‘안녕, 히어로’ VIP시사회 참석
- 2017.9.6. [국가손배대응모임] 제10차 국가손배대응모임 회의
- 2017.9.8. [진상조사위] 평화박물관 상대 회비반환소송 1심 선고 승소
- 2017.9.8. [연대활동] KBS-MBC 돌마고파티 참석
- 2017.9.11. [지원활동] 손배소피해자법률비용지원 ‘현대차비정규직 연대자’ <사용보고> 상고비용 긴급모금 결과 및 모금사용 보고드립니다
- 2017.9.11. [기자회견] 비정규직 연대자에 대한 20억 손해배상판결 대법원 상고 기자회견

- 2017.9.11. [회원활동] 손잡고*참여연대*천주교인권위 공동 ‘안녕히어로’ 회원상영회
- 2017.9.11. [손잡고편지] 행정소송 법률비용으로 권리포기 위기에 처한 ‘하이디스지회’ 소식 전합니다
- 2017.9.13. [지원활동] 손배소피해자법률비용지원 ‘하이디스지회’
- 2017.9.15. [연대활동] KBS-MBC 돌마고파티 참석
- 2017.9.19. [법제도개선위] 판례평석-하이디스 정리해고 사건에 관한 두 개의 상반된 판결
- 2017.9.19. [법제도개선위] 손잡고법제도개선위 2기 구성 기획회의 1차
- 2017.9.19. [캠페인] 문화캠페인 기획회의
- 2017.9.22. [진상조사위] 평화박물관 회비반환소송 항소
- 2017.9.22. [국가손배대응모임] <국회정책토론회> 전략적 봉쇄소송 현황과 과제 정책 토론회 토론 참여
- 2017.9.25.- [연대활동] KEC지회 임금압류일지 기획기고 시작
- 2017.9.26. [연대활동] <공동성명>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관련 시민사회-종교계 입장 “파리바게뜨는 고용노동부의 직접고용 지시 이행하라” 단체 연명 참여
- 2017.9.27. [노동현장간담회] 제25차 손잡고노동현장간담회
- 2017.9.27. [국가손배대응모임] 제11차 국가손배대응모임 회의
- 2017.9.27. [운영위원회의] 제16차 손잡고 운영위원회의
- 2017.9.28. [연대활동] KTX해고승무원 복직을 위한 바자회 연대
- 2017.9.28. [연대활동] 동양시멘트지부(삼표지부) 투쟁승리 보고대회
- 2017.9.28. [연대활동] 연분홍치마 후원주점
- 2017.9.30. [법제도개선위] 고용노동부장관 국정감사 질의서 의원실 전달
- 2017.9.30. [국가손배대응모임] 법무부장관, 경찰청, 국가손배 국정감사 질의서 각 행안위, 법사위 소속 의원실 전달
- 2017.10.10. [입법활동] 강병원 환노위 의원 손잡고면담
- 2017.10.10. [논평] 유엔사회권위원회의 한국정부 사회권에 대한 최종권고문에 관한 논평 “손배가압류 ‘노동자를 상대로 한 보복조치’” 정부는 유엔사회권위원회 권고를 즉각 이행하라
- 2017.10.12. [진상조사위] 한홍구 전 위원, 손잡고와 진상조사위원 3인 상대로 손배소 제기(3천만원)
- 2017.10.14. [기타활동] 전태일노동상 단체추천 ‘동양시멘트지부’ 추천서 발송
- 2017.10.16. [국가손배대응모임] 국민인수위 국가손배질의 ‘경찰청’ 답변공문 수신

- 2017.10.16. [연대활동] <노조좋아운동본부> 연대단체 연명 및 참여
- 2017.10.19. [국가손배대응모임] 제12차 국가손배대응모임 회의
- 2017.10.20. [진상조사위] 손잡고 진상조사소위원회 11차 회의
- 2017.10.24. [기자회견] KEC 손해배상 청구소송 기자회견
- 2017.10.24. [연대활동] <노조좋아운동본부> 김앤장 규탄 1인시위
- 2017.10.24. [손배피해기록] 하이디스지회 손배가압류 당사자 인터뷰
- 2017.10.25. [연대활동] MBC 파업콘서트 '다시 만나도 좋은 친구' 참여
- 2017.10.25. [운영위원회의] 제17차 손잡고 운영위원회의
- 2017.10.26. [입법활동]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손잡고면담
- 2017.10.27. [전시기획] 손배가압류 전시 기획회의
- 2017.10.27. [기타활동] "3대로뎀 최근 4대 노동이슈별 노동분쟁 접근전략"관련 규탄 1인시위
- 2017.11.2. [진상조사위] 회비반환항소심 조정재판부 회부 결정문 송달됨
- 2017.11.3. [연대활동]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후원주점 연대
- 2017.11.6. [연대활동] <공영방송정상화시민행동> 광화문 앞 1인시위
- 2017.11.9. [진상조사위] 평화박물관 1심 패소 관련 회비 일부 반환 확인
- 2017.11.13. [연대활동] "전태일에게 노동조합을! 1,113인 사회적 선언" 연명
- 2017.11.10. [손배피해기록]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 손배피해당사자 인터뷰
- 2017.11.11. [손배피해기록] 울산과학대학교지부 가압류피해당사자 인터뷰
- 2017.11.13. [국가손배대응모임] 제13차 국가손배대응모임 회의
- 2017.11.15. [노동현장간담회] 제26차 노동현장간담회
- 2017.11.17. [논평] 유성기업의 노동자 손배소 제기에 대한 규탄 논평 "노조파괴사업장 '유성기업'은 '손배소 보복 조치' 즉각 중단하라 - 고용노동부는 '괴롭히기' 소송에 대한 전면조사와 구제방안을 마련하라
- 2017.11.20. [진상조사위] 회비반환소송 항소이유서 수신
- 2017.11.21. [운영위원회의] 제18차 손잡고 운영위원회의
- 2017.11.21. [연대활동] 파인텍지회 고공농성 현장 연대방문
- 2017.11.23. [손배피해기록] 원종복지관 손배가압류 피해당사자 인터뷰
- 2017.11.23. [진상조사위] <입장문> 한홍구 교수가 제기한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의 소에 대한 '손잡고' 진상조사소위원회의 입장
- 2017.11.24. [연대활동] 인도원정투쟁 발대식 및 쌍차지부 결의대회 연대
- 2017.11.28. [토론회] 국가/기업의 괴롭히기소송 남발, 어떻게 할 것인가

- 2017.11.28. [국가손배대응모임] 제14차 국가손배대응모임 회의
- 2017.11.29. [연대활동] 민주노총 투쟁사업장 손배가압류 문화제
- 2017.12.1. [연대활동] 쌍용자동차지부 인도원정투쟁선포 기자회견 “마힌드라는 해고자 복직약속을 지켜라” 연대
- 2017.12.1. [논평] 하이디스지회 ‘모욕건 손배소 2심 선고에 대한 논평 “노동자에 대한 보복에 장단 맞추는 사법부 판결을 규탄한다”
- 2017.12.1. [진상조사위] 회비반환소송 항소심 준비서면 제출
- 2017.12.1.-2. [기타활동] 손잡고 운영위 모꼬지 및 삼표지부 방문
- 2017.12.5. [국가손배대응모임] 법무실장 면담
- 2017.12.5. [논평] 갑을오토텍지회에 제기된 손배소 1심 판결에 대한 논평 “쟁의 원인을 제공한 사측의 책임을 묻는 재판부 판결, 환영한다”
- 2017.12.6. [법제도개선위] 법제도개선위 구성을 위한 2차 임시회의
- 2017.12.7. [연대활동] NCKK인권상 시상식 참여 “동양시멘트지부 수상”
- 2017.12.8. [진상조사위] 회비반환소송 항소심 조정절차 마무리
- 2017.12.9. [노동현장간담회] “비정규직 모여라” 집담회 ‘손배가압류’ 파트, 손잡고 노동현장간담회 단위 참여
- 2017.12.12. [논평] 정부의 강정마을 구상권 법원 조정 수용 결정에 대한 논평 “정부 결정이 국민에 대한 국가손배 철회의 첫 행보이길 바란다”
- 2017.12.14. [진상조사위] 회비반환소송 조정재판부 강제조정결정문 회람, 1심 선고 유지 결정
- 2017.12.15. [국가손배대응모임] <논평> 강정마을 주민과 평화활동가에 대한 정부의 구상권 청구 취소를 환영한다 - 집회 시위 쟁의행위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가압류 모두 철회되어야
- 2017.12.18. [연대활동] 용산참사대책위 ‘공동정범’ 시사회
- 2017.12.19. [운영위원회] 제19차 손잡고 운영위원회의
- 2017.12.20. [노동현장간담회] 제28차 손잡고 노동현장간담회
- 2017.12.20. [연대활동] 하이디스지회 정리하고 1000일 투쟁승리 결의 문화제
- 2017.12.22. [연대활동] <재판참관> 유성기업 유시영회장 부당노동행위 대법원 선고 재판
- 2017.12.22. [논평] 유성기업 부당노동행위 대법원 판결에 대한 논평 “유성기업 노조 파괴는 ‘유죄’다, 노조파괴 시나리오 당장 멈추라!”
- 2017.12.22.-23. [손배피해기록] KEC지회 손배청구 임금압류 당사자 인터뷰

- 2017.12.27. [연대활동] 탄원서 “하이디스지회 명예훼손 손배소 2심 기각탄원”
- 2017.12.27. [기자회견] 하이디스 정리해고 1000일 연대의 날 기자회견 “손배신발을 연대신발로”
- 2017.12.27. [국가손배대응모임] 제15차 국가손배대응모임 회의
- 2017.12.28. [연대활동] 쌍용차해고노동자 복직을 위한 촛불문화제 연대
- 2017.12.29. [캠페인활동] 연극 <노란봉투> 국회특별공연 관람 안내문 배포
- 2017.12.30. [연대활동] 파인텍 굴뚝농성 연대의 날 “408+49” 연대



2017년 손잡고 감사보고

1. 업무감사보고

「손잡고 2018년 정기총회」 업무 감사 보고서

본 감사는 손잡고 2017년도 사업 활동에 대한 업무 감사를 시행하고 다음과 같이 총회에 감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1. 감사 방법

감사의 실시는 활동보고서 등 업무 관련 서류의 확인, 사무국에 대한 질의 등의 방법으로 시행하였습니다.

2. 감사 평가

2017년 한 해 동안에도 손해배상 가압류로 인한 노동자 피해 구제를 위한 캠페인, 모금 활동, 법제도 개선 활동, 사회여론 형성을 위한 언론 활동, 연대 활동, 회원 활동 등을 나름 충실히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운영위원회와 사무국 운영 등과 관련해서는 크게 지적할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2018. 4. 25

감사 김도형



2. 2017 회계감사 보고

1) 2017년 결산보고(* 2017년 1월 1일~2076년 12월 31일)

수입지부			지출지부		
항목	세부항목	금액	항목	세부항목	금액
회비	CMS	30,580,012	사업비	법률비용지원사업	10,006,754
후원	개인후원	2,498,570		장기해고자긴급지원	237,500,000
	단체후원	3,160,000		직접지원	500,000
	지정기탁	33,731,787		모의법정	13,086,770
입금	운영위원	6,000,000		법제도개선사업	5,550,180
	현금	273,000		노동현장간담회	1,705,710
기타	사업분담금	700,000		연극노란봉투	189,700
	환불	264,000		연극C가왔다	27,556,960
	회비반환소송	21,673,725		티켓수익전달	3,770,000
사업	연극티켓후원	3,770,000		전시기획회의비	38,100
모금	법률비용긴급모금	8,337,777		총회	360,600
지원금	인권재단사람	237,500,000		영상상영회	347,500
	4.9재단	4,500,000		연대활동비	1,658,400
이자	이자	44,850		운영회의	481,860
				홍보비	1,102,500
				발송비	4,820
			사업비소계	303,859,854	
			운영비	인건비/급여	21,539,340
				인건비/단기알바	586,000
				보험공과료	4,255,034
				복리후생비	1,635,100
				관리비	699,100
				임대료	3,505,508
				소모품비	124,120
				통신비	498,525
				지급수수료	1,590,530
				은행수수료	16,500
				기타운영비	2,467,140
				회의비	46,000
				판공비	2400,000
			운영비소계	39,362,897	
수입총계		353,033,721	지출총계		343,222,751

2017 운영성과표

과목	금액
순자산의 증가(표1 수익계-지출계)	9,810,970
기초 순자산(전년도 이월금)	69,204,817
기말 순자산	79,015,787

2017 재무상태표

과목	금액	과목	금액	
유동자산	현금성자산	79,015,787	유동부채	0
기타비유동자산		0	장기충당부채	0
총자산	79,015,787	총부채	0	

2) 회계감사 보고

2017년도 감사보고

총 재무상태

전기이월	69,204,817
수입	353,033,721
지출	343,222,751
차기이월	79,015,787

손잡고의 2017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운영성과표(2017년 1월 1일 ~ 2017년 12월 31일)를 감사하였습니다. 해당 기간동안의 수입과 지출의 집행과 관리가 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감사인의 의견으로는 상기 재무제표는 손잡고의 2017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운용성과 내용을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회계감사 박병학





총회 안건 및 승인

1. 2017년 회계 및 업무감사 보고와 승인

2. 2018년 사업계획(안) 보고와 승인

1) 2018년 주요 활동 목표 :

“손잡고, 맞잡은 손의 온기가 현장에 닿도록”

- 입법활동 : 손배가압류 관련법 개정을 위한 활동
- 모금활동 : 손배가압류 관련 사회적 모금운동
- 지원활동 : 손배가압류 피해자 및 노동현장 지원활동
- 의제활동 : 손배가압류 관련 사회적 의제화(기고, 교육, 토론회, 공청회 등)
- 감시활동 : 손배가압류 현황조사 및 사례 기록
- 캠페인활동 : 손배가압류 문제 해결에 대한 여론형성(공연, 전시, 1인시위 등)
- 회원활동 : 회원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방안 모색
- 회원배가운동
- 사무처 근무환경 개선 및 사무국 구성 확대

2) 2018년 주요 활동 목표에 따른 사업계획안

※ 활동목표 내 필요 시 사업계획 변경 및 신규사업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을 운영 위원회에 일임해주시기 요청드립니다.

① 입법활동

2018년은 ‘노란봉투법’ 입법활동을 포함해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국민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가압류 문제 해결을 위한 법개정 활동을 최우선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② 모금활동

올해는 안정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해 본격적으로 회원배가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캠페인 활동과도 적극 연계에 캠페인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손잡고의 회원 참여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단체홍보도 함께할 것입니다.

전년도 계획했던 <뉴스펀딩>을 하반기 시작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모금 목표 : 5천만원 / 사용계획 : 법제도개선활동, 피해지원활동). 사업성과에 따라 운영위원회 논의를 거쳐 사업수행을 위한 필요 재원이 확보될 때까지 추가 모금 캠페인도 계획할 예정입니다.

2017년과 같이 긴급법률기금모금 등 노동현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운영위

원회의를 거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③ 지원활동

2018년도 손배피해노동현장에 연대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성심수녀회와 같이 손잡고를 통해 피해가구에 직접 지원하고자 하는 단체나 조직은 노동현장과 논의해 연계할 것입니다.

한편, <뉴스펀딩> 모금목표를 충족하게 될 경우, 모금액 일부를 운영위원회 논의를 통해 피해지원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④ 의제활동

노동현장간담회, 법제도개선위원회 등 활동위원회 논의 결과에 따라 간담회, 토론회, 공청회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민주노총 등 손배피해노동현장의 상급단체와 협의해 권역별 간담회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손배피해노동현장의 문제를 지역에 알려 지역사회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보도자료, 취재요청 등 언론에 홍보자료를 전하는 것을 넘어, 2018년과 마찬가지로 운영위원과 활동가가 적극 나서 기고와 홍보활동을 펼칠 것입니다.

⑤ 감시활동

2018년에도 양대노총과 함께 손해배상 가압류 현황을 집계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혹시 있을지 모를 양대노총 사업장 소속이 아닌 피해사례까지도 놓치지 않고 수집할 수 있도록 집계 전 언론과 SNS를 통해 광고하는 등의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⑥ 캠페인활동

2018년 계획된 캠페인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제4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 올해도 모의법정은 계속됩니다. 서울대공익인권법센터(센터장 양현아)와 대회준비에 들어갔습니다. 5월 공고를 시작으로 본 대회는 8월 18일(토) 열릴 예정입니다.

- 제3회 손잡고 연극제 : 2018년 하반기를 목표로 공연기획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 문화기획 : 하반기 손배가압류를 알리는 ‘전시기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시가 모금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⑦ 학술연구활동

- 손배피해기록 : 2018년에도 틈틈이 개별피해노동자를 만나 손배가압류 피해 구술을 받아 기록할 예정입니다.

- 사회역학조사 : 고려대학교 보건정책학과 김승섭 교수의 제안으로 2018년 손배가압류 피해 노동현장을 대상으로 사회역학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손배가압류가 ‘노동자 권리’에 미치는 영향, 권리침해가 노동자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할 예정입니다. 해당 조사결과가 노동자 권리개선을 위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2018년 손잡고 활동계획

항목구분	사업계획	시기	비고
모금활동	CMS-회원배가활동	수시	
	뉴스펀딩	2018. 7	2019년 사업예산마련
	기타 긴급모금	요청 시	
캠페인활동	제4회노란봉투법 모의법정경연대회	2018.5.1~8.31	정기사업
	제3회 손잡고연극제	2018.9.~11	프로젝트지원 계획
	전시기획	2018.6.~11	
	기타		
법제도개선활동	노동현장간담회	월1회	정기사업
	법제도개선위 입법활동	상반기	노란봉투법(상반기) 국가손배관련법(하반기)
	2018년 손배가압류현황발표	연1회	정기사업
	손잡고-손배피해현장 권역별간담회	2018.6.~12	현황발표에 맞춰 진행, 필요 시 추가 계획
	국가손배대응모임	월1회	정기사업
	학술연구	손배피해기록	수시
사회역학조사		2018.5~	고려대 김승섭 교수팀
연대활동	투쟁사업장지원	수시	
	기타(성명, 기자회견 등)	수시	

지원활동	피해자 지원	필요 시	모금활동 결과에 따라 변동
	지원 연계	요청 시	연계요청시 논의 후 결정
기고활동	손배가압류 관련 기고	수시	
	손잡고 운영위원 릴레이기고	수시	
회원활동	총회	2018.4.27	정기사업
	송년회	2018.12	
	손잡고 편지	수시	
	기타		

3. 2018년 예산(안) 보고와 승인

1) 전년도 이월자산 : 79,015,787원

2) 2018년 예산(안)

수입예산				지출예산			
항목	세부항목	금액	내역	항목	세부항목	2018년(안)	2017년
이월		79,015,787		운영비	인건비	22,000,000	39,362,897 월평균 380만원
후원	회비	31,000,000	전년도 기준		인건비 외 운영비	17,000,000	
	운영위원적립	6,000,000			소계	39,000,000	
	기타	3,000,000	2017년 단체후원 평균	모금활동	5,000,000	303,859,854 월평균 360만원 지출	
사업 기금	뉴스펀딩	50,000,000		캠페인활동	40,000,000		
	해피빈재단	20,000,000	확정	법제도개선	10,000,000		
	소계	40,000,000		연대활동	2,000,000		
				사업비	회원활동		2,400,000
					도서인쇄비		100,000
					발송비		100,000
					홍보비		5,000,000
					회의비		1,200,000
					기타활동비		3,000,000
					소계	68,800,000	
			예비비		42,215,787		
수입총계		149,015,787		지출총계		149,015,787	

4. 임원선출 보고 및 승인의 건

5. 기타안건

[첨부자료1. 손잡고 정관]

손잡고 정관

2016. 4. 25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모임은 '손배 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약칭 “손잡고”)'라 한다.

제2조 [목적]

손잡고는 노동쟁의 등을 원인으로 제기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 및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 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손배 가압류’라 한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노동자 피해구제와 관련 법제도의 개선, 시민모금과 사회 여론형성 등 노동문제에 대한 시민 인식제고와 다양한 활동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구성]

손잡고는 제2조의 목적에 동의하는 자유로운 개인과 단체로 구성하며,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운영한다.

제4조 [사업]

① 손잡고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래의 활동과 사업을 전개한다.

1. 손배 가압류와 업무방해죄 관련 법제도 개선 사업
2. 손배 가압류 관련 모금
3. 손배 가압류 관련 피해자 지원 사업
4. 손배 가압류 관련 사회 의제화 사업
5. 노동문제에 대한 시민사회 인식제고
6. 기타 목적에 부합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② 손잡고는 제2조의 목적과 위 ①항의 사업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신설>

제5조 [소재]

손잡고의 사무소는 서울에 둔다.

제2장 회원

제6조 [회원]

- ① 손잡고의 목적에 동의하여 제안자(발기인)로 참여하거나 소정의 절차에 따라 가입을 신청한 사람이나 단체는 회원이 된다.
- ② 회원 가입 절차는 내규로 정한다.

제7조 [권리]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1. 총회를 통하여 손잡고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
2. 손잡고의 사업 및 활동에 참여할 권리

제8조 [의무]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

1. 손잡고의 정관 및 규정을 준수할 의무
2. 후원금 또는 회비를 납부할 의무

제9조 [자격 상실, 탈퇴]

- ① 회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손잡고의 명예를 실추시킨 회원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 ②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3장 기관

제1절 총회

제10조 [지위]

총회는 손잡고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고 대표가 소집한다.

제11조 [구성]

총회는 대표와 운영위원,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2조 [소집]

- 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대표가 소집한다.
- ② 임시총회는 대표 또는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회원 10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대표가 소집한다.
- ③ 총회의 소집은 대표가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의 방법은 문서,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할 수 있다.
- ④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소집을 기피함으로써 총회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 운영위원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10분의 1 이상의 명의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 총회는 출석한 운영위원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참석 회원들의 의결로써 의장을 선출한다.

제13조 [권한과 의결사항]

- ① 총회는 손잡고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들을 토의하고 결정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총회에서는 다음의 사항들을 결정한다.
 1. 정관의 개정
 2. 대표와 감사, 운영위원의 선출 및 해임
 3. 결산, 예산과 사업 계획의 승인
 4. 손잡고의 해산
 5. 기타
- ③ 필요한 경우 인터넷을 이용한 총회를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다.
- ④ 인터넷을 이용한 총회에서의 토의, 의결 등 구체적인 운영 방법은 내규로 정한다.

제13조의 2 [임원의 해임] 대표, 감사, 운영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1. 손잡고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손잡고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2절 운영위원회

제14조 [지위]

운영위원회는 총회의 위임을 받아 다음 총회까지 손잡고의 조직과 운영, 사업과 활동에 관한 중요한 사항들을 토의하고 의결하는 상설 기관이다.

제15조 [구성]

- ① 운영위원회는 총회에서 선출한 대표와 5인 이상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운영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 ③ 대표가 운영위원장이 되며, 공동대표를 두는 경우 공동대표 중에서 호선으로 1인을 운영위원장으로 한다.
- ④ 부위원장은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임하며, 운영위원장의 궐위 또는 사고 시에는 연장자 순으로 운영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⑤ 운영위원회 내에 활동위원회, 특별위원회, 소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 ⑥ 감사는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6조 [임기]

- ① 운영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②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7조 [소집]

운영위원회는 매월 소집하는 정기 운영위원회와 운영위원 1/5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는 임시 운영위원회로 구분한다.

제18조 [의결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 [의결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예산,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내규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4.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5.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심의 및 의결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3절 활동위원회

제20조 [지위]

- ① 손잡고의 목적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활동위원회를 둘 수 있다. 활동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집행하며, 정관에 명시된 사업과 활동을 추진하는 기구이다.
- ② 각 활동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 ③ 각 활동위원회는 손잡고의 목적과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전체 사업취지의 범위 안에서 자율적인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 ④ 활동위원회는 운영위원회에 활동보고와 계획을 제출한다.

제21조 [구성]

- ① 활동위원회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활동위원회는 기금관리위원회, 소통위원회, 법제도개선위원회 등 손잡고의 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다.

제22조 [임기]

활동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4절 대표, 감사, 사무국 등

제23조 [대표]

- ① 대표는 손잡고를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대표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2인 이상의 공동대표를 둘 수 있다.
- ③ 공동대표는 각자 손잡고를 대표한다. 대표가 결위 또는 유고시에는 운영위원 중 연장자가 대표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④ 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23조의 2 [감사]

- ①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②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③ 감사는 일반회계 및 운영에 대해 감사하며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을 경우 운영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하고 그 보고를 위하여 운영위원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23조의 3 [사무국]

- ① 손잡고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의 종사자를 포함한 구성원과 조직은 운영위원회 결의로 정한다.
- ② 사무국 종사자의 임면에 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별도의 인사규정을 두어 정한다.

제24조 [자문위원]

손잡고는 노동단체, 시민사회단체, 학계, 문화예술계를 대표하는 인사와 단체를 자문위원으로 두어 손잡고의 활동에 대한 협력과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5절 지역조직, 부설기관

제25조 [지역조직 등]

- ① 손잡고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조직 또는 회원모임을 둘 수 있다.
- ② 지역조직 또는 회원모임의 조직과 구성은 내규로 정한다.

제26조 [부설기관]

손잡고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제4장 재정

제27조 [회계 연도]

손잡고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8조 [예산과 결산]

- ① 감사는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전년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
- ② 대표는 손잡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해야 한다.

제29조 [수입]

손잡고의 수입은 회원 회비, 후원금, 특별 모금, 기타 수익으로 한다. 단, 아름다운재단과 함께하는 모금은 사업비로 하되, 운영비는 별도 모금으로 충당한다.

제5장 해산

제30조 [해산 사유]

손잡고는 아래의 사유가 있을 때 해산한다.

- ① 설립 목적을 달성하였을 때
- ② 설립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때
- ③ 기타 설립 취지에 따른 단체 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정이 있을 때

제31조 [해산 절차]

- ① 전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총회의 의결로 해산을 결정한다.
- ② 해산 결정과 함께 청산에 필요한 업무 처리를 위해 총회에서 청산위원회를 구성한다.

제32조 [잔여 재산의 귀속]

손잡고가 해산하는 경우 잔여 재산은 총회의 의결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손잡고의 설립 취지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시킨다.

제6장 보칙

제33조 [준용 규정]

- ①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주주의 일반 원칙과 내규에 따른다.
- ② 내규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정관은 창립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2016. 4. 15. 개정]

- 1. 이 정관 중 개정조항은 2016. 4. 25. 총회에서의 의결이 있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첨부자료2. 20대국회 발의 '노란봉투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157
----------	------

발의연월일 : 2017. 1. 18.

발 의 자 : 강병원·남인순·김영주

유승희·문미옥·어기구
신창현·박찬대·김병관
이원욱·서영교·윤후덕
김현권·소병훈·전해철
이철희·권미혁·박남춘
박광운·이용득·박홍근
송옥주·박 정·임종성
의원(2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적 손해에 대한 민사면책의 인정 요건을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로 좁게 한정하고 있어, 폭력이나 파괴행위와 같이 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행위가 아닌 평화적인 노무제공 거부에 대해서까지 사용자의 영업손실에 대한 책임이 전면적으로 허용되고 있음.

계약자유 원칙으로 대변되는 「민법」의 원리 대신에 실질적인 대등한 거래당사자로서의 힘의 균형을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개인간의 거래의 자유를 수정하여 노동기본권을 보장한 「헌법」 제33

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노동관계법상 노동조합이 행하는 쟁의행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노동사건에 있어서 민사적 원리가 전면적으로 적용되도록 하는 것은 오히려 노동법과 노동사건의 사회법적인 특수성을 부정하는 태도라 아니할 수 없음.

한편,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 발생 시 노동조합 및 근로자가 생계 위협을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바, 노동3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33조의 취지상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와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을 달리 취급할 이유는 없음.

따라서 파업권의 보장과 재산권의 보호라는 양 측면의 비교형량과 더불어 기업 활동에 있어서 위험부담의 원칙, 강제근로 금지의 원칙 등을 고려할 때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게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폭력이나 파괴를 주되게 동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손해배상이 인정되도록 함(안 제3조제1항).

나. 집단적 행동에 대하여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금지

「헌법」상 단체행동권(「헌법」 제33조제1항)은 개별근로자 및 그 단결체가 이를 향유하나, 개별근로자들은 법의 규정에 따라 그들의 단체인 노동조합을 통하여 쟁의행위를 한다는 점에서 쟁의행위

는 개별 근로자가 아닌 노동자 집단 그 자체의 통일적인 행동으로서 집단적인 행위임. 이는 쟁의행위가 통상 노동조합의 결의와 지시를 기초로 통일적 행동으로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실태에도 부합함.

쟁의행위는 그 성질상 일상적인 업무를 전면적 또는 부분적으로 정지시켜 쟁의노동관계라고 해야 할 특수한 관계를 노사 사이에 만들어 내며, 쟁의행위 국면에서는 일상적 노동관계를 전제로 한 개별 근로계약에 기한 근로의무와 직장규율의 전제되는 기반 그 자체가 결여되게 되고, 이러한 쟁의행위의 특수한 성격은 쟁의행위가 정당한 경우는 물론 어떠한 이유로 그 정당성이 부정되는 경우에도 여전히 사실로서 존재함.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부정되자마자 쟁의노동관계를 모두 일상적인 노동관계의 기준에 따라 개별 근로자들을 기준으로 규율하려고 하는 것은 지나치게 형식적인 태도임.

노동조합의 투표 등 절차를 거쳐 조합원의 총의로 형성된 경우 사용자는 단결승인의무를 기초로 노동조합의 총의를 존중해야 하며, 쟁의행위가 위법하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도 누가 그것을 지도하고 누가 적극적으로 참가하였는가를 추궁하여 단체의 책임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단결자치에 대한 부당한 개입이라고 할 것임. 조합임원과 일반조합원의 각 행위는 전체적으로 노동조합의 통제 아래 이루어진 행위인 경우에는 법적으로는 노동조합이 행하는 쟁의행위의 단순한 일개 구성부분으로서만 평가되어야 마땅함.

따라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으

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가 예외적으로 폭력이나 파괴를 주되게 동반하여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것이 노동조합에 의해 계획된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임원이나 조합원 그 밖에 근로자에 대하여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거나 그 가압류를 신청할 수 없도록 하고, 다만 노동조합의 통제에서 이탈한 개별적인 행위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인정되도록 함(안 제3조제2항 신설).

다. 신원보증인에 대한 손해배상 금지

신원보증은 피고용인이 고용 후 고용주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을 제3자가 약속하는 것임. 신원보증은 근로(고용)계약에 부수되는 일종의 보증계약이라는 점에서 정의행위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일시적으로 중단되고 정의노동관계라고 하는 특수한 관계에 돌입한 상태에서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신원보증인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은 신원보증인 제도의 취지와 배치됨.

더욱이 노사관계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신원보증인에게 노동조합의 집단적 행동인 정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해서까지 그 책임을 지우는 것은 제3자인 보증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부담을 지우는 것임.

따라서 「신원보증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신원보증인은 단체교섭 또는 정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

해에 대하여는 배상할 책임이 없도록 함(안 제3조제3항).

라. 노동조합 존립을 불가능하게 하는 손해배상액 제한

노동조합은 근로자에 대한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필요적 기구이자, 사실상 기본권인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의 주체이며, 다른 노동권의 행사를 위한 실질적인 담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 헌법 실현적이고 기본권 보장적인 기구인 노동조합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의 물적 토대가 필수적임.

그런데 쟁의행위 등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소송이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까지 청구됨으로 인하여 여러 노동조합의 재정이 위기 상황에 처하거나, 심할 경우 노동조합 그 자체가 와해되거나 붕괴되는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되고 있음. 이런 상황과 위협으로부터 노동조합의 존립 그 자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의 상한선을 법률에 규정한 영국의 입법례를 참조하여 조합원 인원 수 등을 기준으로 노동조합의 손해배상 책임의 상한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근로기준법」 제46조제2항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한 휴업 시에도 사업계속의 불가능이라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휴

업수당을 기준 이하로 함으로써 사용자의 수당지급의무를 경감하고 있는바 이는 노사관계의 계속성과 상호관련성에서 비롯된 것임.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쟁의행위 등으로 인하여 예외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노동조합의 존립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는 것은 계속적 노사관계의 본질에 비추어 결코 바람직하지 않음.

따라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가 예외적으로 폭력이나 파괴를 주되게 동반하여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손해배상 및 가압류로 말미암아 노동조합의 존립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 신청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사업 또는 사업장별 조합원 수, 조합비, 그 밖에 노동조합의 재정규모 등을 고려하여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3조의2 신설).

마. 손해배상액의 경감청구

「민법」 제765조 및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에는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법원이 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쟁의행위의 경우에도 시장상황, 사업의 규모 등에 따른 위험부담은 본래 경영자가 부담하고 있던 것이므로 불법과업임을 이유로 이

를 전부 노동조합 측에 지우는 것은 형평의 원칙상 타당하지 않음.
또한 쟁의행위 원인과 경위, 배상의무자의 경제적 상태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가 예외적으로 폭력이나 파괴를 주되게 동반하여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경우, 또는 노동조합의 통제에서 이탈한 개별적인 행위로 인하여 예외적으로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손해배상 의무자는 법원에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쟁의행위 등의 원인과 경위, 사용자 영업의 규모, 시장 상황 등 사용자 피해 확대의 원인, 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사용자의 노력 유무, 배상의무자의 경제상태, 각 당사자가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정도, 그 밖에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정을 고려하여 그 손해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3 신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중 “損害賠償 請求의”를 “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이 法에 의한 團體交渉 또는 爭議行爲로”를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폭력이나 파괴를 주되게 동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용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행위라도 그것이 노동조합에 의하여 계획된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임원이나 조합원 그 밖에 근로자에 대하여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거나 가압류를 신청할 수 없다. 다만, 노동조합의 통제에서 이탈한 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신원보증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신원보증인은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제3조의2 및 제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손해배상액의 제한) ① 제3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손해배상 및 가압류로 말미암아 노동조합의 존립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에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② 사업 또는 사업장별 조합원 수, 조합비, 그 밖에 노동조합의 재정규모 등을 고려하여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의3(손해배상액의 경감청구) ① 제3조 및 제3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자는 법원에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손해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다.

1. 쟁의행위 등의 원인과 경위

2. 사용자 영업의 규모, 시장 상황 등 사용자 피해 확대의 원인
3. 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사용자의 노력 유무
4. 배상무자의 경제상태
5. 제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정도
6. 그 밖에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정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第3條(損害賠償 請求의 제한) 使用者는 이 法에 의한 團體交涉 또는 爭議行爲로 인하여 損害를 입은 경우에 勞動組合 또는 勤勞者에 대하여 그 賠償을 請求할 수 없다. <단서 신설></p> <p style="margin-top: 20px;"><신 설></p> <p style="margin-top: 20px;"><신 설></p>	<p>제3조(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의----) ① ----- 단체교섭, 정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p> <p style="margin-top: 10px;">----- . 다만, 폭력이나 파괴를 주되게 동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 style="margin-top: 10px;">② 사용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행위라도 그것이 노동조합에 의하여 계획된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임원이나 조합원 그 밖에 근로자에 대하여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거나 가압류를 신청할 수 없다. 다만, 노동조합의 통제에서 이탈한 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 style="margin-top: 10px;">③ 「신원보증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신원보증인은 단체교섭 또는 정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p>

<신 설>

<신 설>

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제3조의2(손해배상액의 제한) ①

제3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손해배상 및 가압류로 말미암아 노동조합의 존립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에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② 사업 또는 사업장별 조합원 수, 조합비, 그 밖에 노동조합의 재정규모 등을 고려하여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의3(손해배상액의 경감청구)

① 제3조 및 제3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자는 법원에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손해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다.

1. 정의행위 등의 원인과 경위
2. 사용자 영업의 규모, 시장 상황 등 사용자 피해 확대의 원인

3. 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사용자의 노력 유무

4. 배상의무자의 경제상태

5. 제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정도

6. 그 밖에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정

손잡고  마음 따뜻하다!
노란봉투

손잡고 자료집

손잡고 제3차 회원총회 자료집

발행일 2018. 04. 27.

발행처 손잡고(대표 : 배춘환)

담 당 윤지선 활동가 02-725-4777 sonjabgo47@gmail.com

Copyright ©손잡고, 2017

대표전화 02-725-4777

홈페이지 www.sonjabgo.org
